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신데렐라’형 설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 명 희

2014년 8월

‘신데렐라’형 설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법

지도교수 안 성 수

김 명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年 8月

김명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8월

‘신데렐라’형 설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법

김 명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공

지도교수 안 성 수

이 논문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학습자에게 위해 한국 설화 「콩쥐팥쥐」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법과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안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는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닌 ‘신데렐라’형 설화인 「콩쥐팥쥐」를 활용하여 학습할 경우, 비교 문화의 관점에서 한국문화의 특성과 가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데렐라’ 유형에 해당하는 독일, 한국, 중국, 일본의 설화자료를 바탕으로 각국 기본 서사 구조를 분석한 후 ‘신데렐라’ 형 설화의 보편적 서사구조를 파악하였다.

둘째, ‘신데렐라’ 유형에 해당하는 한국 설화 「콩쥐팥쥐」의 문화적 요소와 특징을 시·공간과 서사 구조, 인물의 성격과 갈등, 주제와 세계관, 미의식 등에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셋째, 한국 설화 「콩쥐팥쥐」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교수·학습과정안도 작성하였다. 이 과정안을 구현하기 위해 활동중심의 통합학습 방법과 현시적 교수법을 사용하여 구체화하였다.

넷째, 한국 설화 「콩쥐팥쥐」를 활용한 문화교육 방법을 모색하고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문화교육 교수·학습 모형과 과정안을 제시한 점과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의 효용성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차 례>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의 방법	6
II. 문화교육 학습제재로서의 설화	8
1.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	8
2.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	12
III. '신데렐라'형 설화의 구조 분석	18
1. 독일, 중국, 일본의 설화	20
2. 한국의 「콩쥐팍쥐」	26
3. '신데렐라'형 설화의 보편구조	28
IV. 『콩쥐팍쥐』의 한국 문화적 특성	32
1. 사건의 시·공간과 서사구조	32
2. 인물의 성격과 갈등	36
3. 주제와 세계관	41
V. 『콩쥐팍쥐』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안	44
1. 교수 · 학습모형	44
2. 교수 · 학습과정안	48
VI. 결론	58
<참고문헌>	60
<Abstract>	65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로만 야콥슨에 따르면, 언어에 내재된 문화적 배경과 담화적 상황은 의사소통의 성패를 결정짓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요즘 들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학습자들이 한국의 새로운 언어 환경과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함께 배우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언어에 대한 문화적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들이 언어에 대한 역사·문화적 코드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기인한다.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언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문학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문학작품은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전통과 정서, 윤리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언어의 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입체적이고 함축적으로 배울 수 있는 보고(寶庫)이다. 특히, 문학 텍스트 중에서도 고전문학 작품은 한 나라 국민들의 심미구조 속에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집단무의식과 심리적 원형 등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텍스트라는 점에 이의가 없다.

따라서 문학작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외국인을 위한 언어와 문화교육의 텍스트로서 충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문학작품은 그 나라 국민들의 정서와 사상, 전통 등을 객관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문화교육의 텍스트이다. 둘째, 문학작품에 배열된 정선된 언어와 문장들은 그 나라의 문화를 가장 세련되고 품격 있게 들려주는 언어 사용의 예를 제공한다. 셋째, 문학작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언어 문화적 상황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넷째, 문학작품은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따른 다양한 표현능력을 가르쳐 주는 효율적인 텍스트이다. 이러한 예는 미국의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교사들이 재량에 따라 다양한 텍스트(신문, 잡지 기사, 만화, 광고지, 문학작품 등)를 언어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한국의 문학작품들이 한국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교육하는데 효과적인 텍스트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들이다.¹⁾ 그 중에서도, 한국의 고전문학 작품은 오늘날까지 계승되

1) 윤여탁,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한국어교육』 제 14-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142쪽.

고 있는 한국문화의 원형과 뿌리를 이해시키는 데도 적절한 교육 텍스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전문학 텍스트들은 환상적이고 교훈적인 내용과 간단한 줄거리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제공함은 물론, 자국 문학과 문화적 차이를 인식시키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다.²⁾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고전문학 작품들이 지닌 장점을 활용하여 한국의 고전설화를 문화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을 탐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고전설화는 민중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전승해온 이야기로서 한국인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윤리, 가치관 등을 내재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한국인, 한국문화를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텍스트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 몇몇 설화는 세계적 보편성과 민족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서, 외국인 학습자가 양국의 문화적 특성을 비교하며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논자가 '신데렐라'형 설화 「콩쥐팥쥐」를 텍스트로 삼아 그것이 지닌 이중성 즉, 이야기 구조의 보편성과 문화적 개별성을 통하여 한국 문화교육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콩쥐팥쥐」를 텍스트로 사용할 경우, 세계문화의 보편구조와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양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³⁾

이를테면, 「콩쥐팥쥐」를 제재로 하여 한국 문화교육을 실시한다면, 학습자에게는 자국의 신데렐라 유형의 이야기와 한국 고전설화 「콩쥐팥쥐」를 비교·학습함으로써 줄거리를 쉽게 인식하고, 양국 문화의 차이와 유사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는 「콩쥐팥쥐」와 구조가 동일한 자국의 설화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므로, 한국적인 표현과 문화적 특성을 쉽게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진작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활용능력을 고급단계로 한정하였다. 이는 「콩쥐팥쥐」 이야기를 언어교육의 측면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국의 설화와 비교문화적 차원에서 찾아낸 한국 문화적 요소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과 어휘 활용능력을 겸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크게 두 단계의 연구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먼

2) 양민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한국 고전문학을 중심으로-」(『국제지역연구』 제 9-4호, 2006), 101 ~ 125쪽.

3) 이성희는 세계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설화 「콩쥐팥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선녀와 나무꾼」과 같은 설화를 가르치면 양국 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비교와 상호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방안』,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9, 265쪽.) 한편, 김혜진은 세계적 보편성을 지닌 설화 「콩쥐팥쥐」, 「선녀와 나무꾼」, 「의좋은 형제」, 「금도끼 은도끼」,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등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능력 향상을 위한 설화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32 ~ 43쪽.)

저, '신데렐라'형 설화인 「콩쥐팥쥐」를 텍스트로 하여 한국 문화교육의 교수법을 탐구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모형과 그 과정안을 구안하여 제시하게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영역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 동안 한국어 교육현장에서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문화교육보다는 문법이나 어휘 중심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교육에 편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들이 급격한 증가에 따라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문학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의 양적 성장과 동시에 한국어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이처럼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의사소통능력과 문화능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더불어 해결할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서 한국어 문학교육 연구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는 문학교육의 의의와 당위성에서 출발하여 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문학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걸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⁴⁾ 이를테면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문화의 내용을 범주별로 나누고 학습 단계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매체나 제재를 활용하여 언어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

4) 김정숙,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교육한글』 제 10권, 한글학회, 1997)
박갑수,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과 문화적 배경」(『서청어문』 제 26-1호, 서울대학교, 1998)
조항록,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한국어교육』 제9-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8)
성기철,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한국어교육』 제12-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1)
박영순, 「한국어 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이중언어학』 제 23호, 이중언어학회, 2003)
이진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를 통합시키기 위한 교육적 방안」(『국어교육연구』 제 12집,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연구소, 2003)
김정은, 「한국어 교육에서의 언어 문화교육」(『이중언어학』 제 26호, 이중언어학회, 2004)
김중섭,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이중언어학』 제 27호, 이중언어학회, 2005)
황인교,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한국어교육』 제 31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6)
최주열, 「한국 문화 교육 접근 방법 연구」(『언어와 문화』 제 4-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9)
권오경,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구축방안」(『언어와 문화』 제 5-2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안 등 효과적인 문화교육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화교육 방식은 한국어의 실력 향상을 위한 보조적 차원에 지나지 않음으로, 지나치게 많은 문화를 나열하거나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 보다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한국문화를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에 문학 텍스트 활용이 제기되면서 개별 장르를 통한 문화, 문학교육의 방법을 구안하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윤여탁(1999)⁵⁾은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효용성을 활용하기 위해 문학작품에 실려 있는 능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언어자료의 학습을 강조한다. 이는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능력의 신장뿐 만 아니라, 작품 속 인물들의 사상과 감정, 관습, 소유물, 관계, 가치관, 태도 등을 통해 한국인들의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학작품을 통해서 한국문화를 효율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한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는 시, 소설, 수필 등 문학 장르별로 교육의 의의, 작품 선정기준, 작품목록 제시, 교육 내용 추출 및 구체적인 교육방안 등에 대한 연구⁶⁾도 이루어졌다. 이선이(2003)는 지역화적인 총체적 시각에서의 문화교육을 강조하고 교육내용을 한국의 자연환경, 역사, 생활문화 및 가치 의식에 대한 이해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를 박목월의 시 '나그네'에 적용하여 각 범주에 해당하는 문화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문화 교육을 위한 문학작품의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분야는 시를 비롯한 현대문학 분야인데, 최근에는 고전문학인 설화를 제재로 교실 수업에서 문학을 활용하는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설화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5) 윤여탁,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법」(『국어교육연구』 제 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_____,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법」(『국어교육연구』 제14-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6) 윤 영, 「외국인을 위한 한국소설 교육방안」(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주은정,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연구-초급학습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선이, 「문학을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법」(『한국어교육』 제14-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이수영, 「시를 통한 문화 교육 방안」(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해옥, 「문학작품의 어휘를 통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방법 연구」(『한국언어문화』 제2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최은영, 「수필을 활용한 한국정신문화 교육 방안 연구-재미동포 청소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신주철,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문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장경숙,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방안」(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수진,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연구」(『한국어교육』 제20-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9)

을 언급한 사람은 이성희(1999)⁷⁾이다. 그는 한국인의 심성 이해와 역사·문화적 이해, 관습·미덕·예의 범절의 이해, 관련 속담·관용어구를 통한 어휘 확장과 이야기의 힘(흥미)을 이용한 학습 및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등에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종철(2002)⁸⁾은 고전문학 작품에는 한국어의 정수적인 표현이 들어 있고, 세계 인식의 틀과 지향 가치가 반영되어 있어서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권순희(1996)⁹⁾는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문화 특성을 고려한 교재의 편성방안을 제시하면서 전래동화, 고전소설, 판소리 등을 쉽게 풀이하여 제시하거나 영어로 번역한 읽을거리를 제공하여 한국문화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화소가 비슷한 동·서양 문학작품으로 「홍길동전」과 「로빈훗」, 「콩쥐팍쥐」와 「신데렐라」이야기를 대조하여 학습자가 언어와 문화 차이에 의한 동·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학습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양민정¹⁰⁾은 한국 고전문학 교육은 우리 민족의 구체적인 삶의 양상과 방식 및 풍속, 예속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의사소통 능력향상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고전소설, 고전시가, 신화, 전설, 민담, 속담, 판소리, 탈춤, 국문 여류 수필, 야담 등 고전문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소설 「춘향전」,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교를 통한 한국어 교육방법을 고찰하여 두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는 두 작품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주제, 구조, 영상 매체 활용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교육하고 이해시킴으로써 한국의 세계화에 기여함은 물론 한국 고전문학을 세계적 지평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조화연(2006)¹¹⁾은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의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그는 이야기 구조가 유사한 전래동화 「콩쥐팍쥐」와 「신데렐라」, 「나뭇꾼과 선녀」와 「백조처녀」를 분석하여 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탐구함으로써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더불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문화

7) 이성희, 앞의 논문, 1999.

8) 김종철, 「한국 고전문학과 한국어 교육」(『한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2002)

9) 권순희, 「언어 문학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의 교재 편성 방안」(『국어교육연구』 제 3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6)

10) 양민정,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3)

_____,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국제지역연구』, 2005)

_____, 「동아시아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화 활용의 문화교육 방안 연구」(『국제지역연구』, 2007)

_____, 「외국인을 위한 고전시가 활용의 한국어/문학/문화의 통합적 교육-‘동동’을 중심으로」(『외국어문학연구』 제 29호, 2008)

_____, 「한국어 문화교육의 세계화와 탈춤의 활용 방안 연구」(『세계문학비교연구』 제 24호, 2008)

11) 조화연, 「전래동화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가능성 탐구」(혜전대학 논문집 제 24호, 2006)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유아로 한정하는 한계를 지닌다.

김혜진(2009)¹²⁾은 설화에는 한국의 특수하고 고유한 문화 요소들이 담겨 있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유용한 교육재제로 설화가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설화 제재의 선정에 대해 한국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의 정신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는 효행설화, 열녀설화, 우애설화를 선정하여, 각 설화에서 문화가 실현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문학작품을 통한 문화교육은 개별 문학장르의 특성에 주목하여 교육내용을 추출하고 교육방안을 제시할 때, 학습자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고전설화 제재의 연구는 현대문학 작품제재의 연구에 비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전문학 중 설화문학의 제재에 대한 활용법 연구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모든 학습단계에서 설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설화작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함께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능력과 학습능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법을 탐구하는데 주어져 있다. 이를 위해, 설화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교수자들이 학습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방법을 탐구하여 제시하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목표를 단계별로 탐구하게 될 것이다. 즉, '신데렐라' 유형의 한국 설화인 「콩쥐팍쥐」를 텍스트로 선정하여 한국 문화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국의 '신데렐라'형 설화의 이야기 구조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는 한

12) 김혜진, 앞의 논문, 2009.

국의 「콩쥐팍쥐」 설화와 함께 독일, 중국, 일본 등의 신데렐라 유형의 설화를 선정한 뒤, 각국의 설화 내용을 구조주의와 기호학의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의 기본구조를 확정한다.

그리고 각국의 설화가 지닌 이야기의 기본구조를 「콩쥐팍쥐」와 비교하여 각국의 설화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보편적 모티프¹³⁾와 「콩쥐팍쥐」만이 가진 이질적 모티프를 뽑아내어 한국 문화적 요소를 추출한다. 이렇게 각국의 설화 모티프를 비교하여 문화적 요소를 추출하는 데는 비교문화적 연구방법을 원용함으로써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데렐라’ 유형의 설화는 각국의 문화적 요소를 첨가하여 국가별로 다양하게 변용되고 전승되어왔음을 확인하게 된다.

다음 단계는 앞 단계에서 획득한 설화 분석 자료를 통해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안에 적용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구안된 교수·학습 모형을 교수·학습 과정안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활동 중심의 통합학습 방법과 현시적 교수법을 병용할 것이다. 활동 중심의 통합학습은 「콩쥐팍쥐」를 읽은 후, ‘말하기’와 ‘쓰기’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수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시적 교수법은 각국의 ‘신데렐라’형 설화들이 함유하고 있는 이야기의 기본 서사구조를 찾아내는 방법과 「콩쥐팍쥐」설화의 한국 문화적 요소와 특징을 추출하는 학습과정에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내용을 탐구하는 시범을 보임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설화문학을 효율적으로 가르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고, 학습 내용을 장기간 기억하고 내면화 하는 정교화의 학습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3) 모티프(motif)란 반복되어 나타나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낱말, 문구, 내용 등을 말한다. 한 작품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한 작가, 또는 한 시대, 또는 한 장르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우리 설화에 자주 반복되는 이별한 님, 서양동화에 자주 나타나는 요술할멈과 미녀이야기 등은 민족설화의 모티프이며, 두견, 소쩍새는 동양 시에 자주 나오는 모티프이다.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76, 68~69쪽.)

II. 문화교육 학습제재로서의 설화

이 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의 상황과 위상을 점검하고 문화교육의 한 방법으로써 문학작품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 문화교육에 활용되는 문학작품 중에서도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파악한 후, 한국 문화교육에서 설화가 갖는 학습제재로서의 중요성과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현장에서는 대체로 언어교육이 문화교육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습자에게는 의사소통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어 학습자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통해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서 적절하고 정확하며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목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담화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거나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역사적, 사회적 상징을 이해·활용하고 제도적으로 규범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보다 고급화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언어교육에 문화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문화교육이 전제되지 않는 언어교육은 단순히 담화상황 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용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한국어 교육은 문화교육을 통하여 한국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언어관습, 문화관습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는 크게 일반론적인 관점에서의 문화, 언어 속에서의 문화, 의사소통 관점에서의 문화 등 세 가지 관점에 따라 정의되고 범주화되어 왔다.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여러 가지 정의들은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문화는 여전히 추상적인

것으로 남아 있고 그 문화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으며 더 중요하게 그 문화에 참여하는 경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는 진단과 비판을 함유한다. 문화의 개념과 정의는 다층적이어서 학자마다 내리는 정의가 매우 다양하지만,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개념은 의사소통 관점에서 가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의되어 왔고, 대부분 문화 간 소통 능력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논의되었다.¹⁴⁾

의사소통으로서의 문화는 언어에 의한 의사전달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맥락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몸짓, 표정, 행동 등의 모든 행위와 태도를 조정하고 평가하는 규범이나 모범을 말한다. 문화가 인간의 행위와 태도에 대한 공동의 이해 가능성들을 지칭한다면 행위와 태도로서의 의사소통을 제대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화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⁵⁾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되는 문화나 문화능력을 의사소통 차원에서 규정하고자 한다. 문화능력(cultural component)이란 목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고, 문화에 대한 지식은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문화적 문식성은 개인이 사회 문화적으로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목표 문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화 지식을 말하는데,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전통에 대한 인식, 문화적 유산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 전통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¹⁶⁾ 문화적 문식성은 습득과 이해를 통해 목표 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실제의 의사소통 상황맥락에서 적절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 언어권 사람들의 가치와 행위를 자국의 문화와 비교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때 언급한 문화에 대한 지식은 단순한 배경지식으로서의 문화가 아닌 한국인의 가치 또는 신념을 구체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정신문화와 한국인의 관습화 된 고유한 행위 문화, 그리고 그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문화 어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¹⁷⁾ 따라서 문화 능력은 낮은 언어와 낮은 문화, 목표 언어와의 만남에서 문화적 맥락에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가능하고 상호 문화적 능력의 향상에까지 기여하게 되는 중요한 기반이다.

1970년대 등장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의사소통중심 언어교수법(CLT, communicative

14) 김현정, 「속담을 통한 한국어 문호 교육 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오지혜, 「언어관련 속담을 통한 한국어 교육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5) 권오현,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국어교육연구』 제 12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3), 253~257쪽.

16) Alan C. Purves & Linda papa Sarah Jordan, *Encyclopedia of English Studies and Language Arts*—A project of the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Scholastic, Inc, 1994. pp.339~340 ; 김혜진, 앞의 논문 재인용, 2009.

17) 김혜진, 앞의 논문, 17~18쪽.

language teaching)의 관점에서는 과거 외국어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었던 문법교육이나 문학교육이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된다. 즉 의사소통중심 언어교수법에서는 언어구사의 능숙도나 유창성이 중요 목표였던 관계로 외국어 교육에서 문법이나 어휘교육은 불필요한 지식으로 간주되었으며, 교육 제재로 제시되는 문화 내용이나 문학 작품의 가치는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문학 언어는 엘리트주의적이고 궁벽하고 이상하며 실제적이지 못한 언어라고 평가되었다.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된 것은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이다. 외국어 교육에서 접하는 문학이나 문화는 외국어 학습자가 목표언어를 학습하기 위해 교섭해야 하는 감각적이며 실질적인 자료로 인식된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이나 제2언어교육에서 언어와 문학, 문화를 통합 지향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이러한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는 외국어를 교수·학습하는 도구가 아니라 학습해야 할 실체로 간주되고 있으며, 외국어 능력에서 문화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한 교육 내용이자 활동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생활 외국어로 소통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담화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높은 단계의 소통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외국어 교육의 기본적인 흐름에 따라 한국어 교육연구 및 한국어 교육현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전되었다. 한국어 교육의 초기에는 의사소통의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언어교육이 주로 이루어졌고, 단순히 일반적인 한국문화 항목을 제시하여 단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문화교육으로 인지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어 교재나 읽기 교재에서 문화 요소에 대한 설명을 단순하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교육해 왔다.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은 최근 들어 점점 지양되고 있으며 언어 능력으로 의사소통 능력 이외에 문법 지식, 문화 능력, 문학 능력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바람직한 외국어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구사를 넘어서 목표 언어의 문화나 문학에 대한 이해까지 필요로 하고 있다. 동일한 논리로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또한 비중 있게 교수·학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문화 요소를 활용하는 문화교육 방법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테면,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나 문법교육을 위해 문화를 활용하거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의사소통 교육을 위해 문화를 활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 방법은 한국 문화 교육을 한국어 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고 활용·교육하는 관점에서 언어교육에 중심을 두고 통합적인 교수·학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매우 활발하게 그 이론과 실체가 탐구되고 있다.

최근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측면에서 언급되었다.¹⁸⁾이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어휘, 문화 관련 교육과정, 문화 요소(cultural component) 등이 제

시 되었으며, 설화나 속담, 대중가요, 대중매체, 문학작품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이 소개되었다. 아울러 이런 문화 교육의 방향으로 문화 요소를 교재에 소개하는 단순한 방법보다는 한국 문학작품 속에 녹아 있는 문화를 가르침으로써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나 언어 관습, 문화 관습 등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¹⁹⁾

이처럼 문학작품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콜리(J.Collie)와 슬에이터(S.Slater)는 문학 작품은 문화적 풍요를 보여주며, 문학작품 속에 담긴 문화 맥락은 문화 이해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어 교사들은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작품을 가르치는 방향에 대해서 ‘한국 문화의 특징을 드러내는 작품’을 가르침으로써, ‘문학 속에 나타난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점 역시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목표 언어가 소통되는 사회·문화를 잘 반영한 문학작품을 가르침으로써 문화능력을 함양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²⁰⁾

그리고 김종철(2004)은 효과적인 문화교육 함양을 위해서는 문화 맥락을 잘 보여주는 언어상황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문화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자료가 된다고 주장한다. 문화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습득해야 하는데, 한국어의 언어와 문화를 가장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한국어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문학이다. 한국 문학은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다양하고 심도 있게 다루는 동시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언어와 문화의 자료로서 전면적이지 않지만 오래전부터 한국어 교육과 관련을 맺어 왔다.²¹⁾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문화 요소를 따로 교수·학습 시간을 설정하여 배우기보다 문학작품을 통하여 작품 속의 드러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 한국어 교수·학습에 있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요소나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한국 문화를 교수·학습하는 방법이 실현되고 있으며, 또한 속담 등의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재 등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문화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한국어 문화

18) 성기철,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한국어교육』 제 12-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1)

민현식,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외국어교육학회』 발표 자료집, 2003)

윤여탁,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의 위상과 역할』(『국어교육연구』제 7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0)

_____, 『한국어문화교수학습론』(『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2002)

조항록,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한국어교육』 제 11-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0)

_____, 『한국어문화교육론의 주요 쟁점과 과제』(『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2002)

19) 윤여탁, 『한국어 문화교수 학습론』(『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2002)

20) 윤여탁, 앞의 논문, 2003, 142쪽.

21) 김종철,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제재 활용의 전통』(『국어교육연구』 제14, 서울대학교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2004), 207~208쪽.

교육의 방향은 문화 요소를 교재에 소개하는 단순한 방법보다는 한국 문학작품이나 문화를 소개하는 텍스트를 활용하여 문화를 가르침으로써,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나 언어관습, 문화관습 등을 학습하여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때의 문화능력은 외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문화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이나 배경지식 그 자체보다는 언어활동의 장에서 문화에 맞게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신장을 지향하며 이는 곧,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문화에 대해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친숙해지고 그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문화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어 문화교육 상황에서 설화는 한국어 교육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외국어 교육의 언어와 문화 자료로서 제공되어 왔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기능 중심의 언어교육에서도 설화는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널리 학습되어 왔다. 이는 바로 설화 속에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스며있고 이를 학습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교육과 함께 한국의 문화적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수용·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설화는 한국어 문화교육에 적합한 자료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

한국 문화교육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한국생활의 여러 영역을 두루 잘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문화적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학습자에게 의사소통 능력의 고급화라는 기능적 목적과 함께 한국에서의 문화적 삶의 병행이라는 또 다른 정신적, 교양적 목적으로 확대되어 한국 문화교육의 의의와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한국 문화교육은 한국 문학작품 속에 용해되어 있는 문화적 요소를 추출하여 교수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한국적 가치관이나 지향의식, 언어 및 문화 관습 등을 이해하고, 그들의 한국 생활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 문화교육은 ‘한국 문화의 특징을 드러내는 작품을 가르침으로써, 그 문학 속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한다.²²⁾ 이러한 취지에 부합된 가장 효과적 텍스트가 바로

22) 윤여탁, 앞의 논문, 2003, 143쪽

고전문학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문화교육에 있어서 고전문학을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하여 강조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의 역사에서 그 정수적 표현을 얻은 것이 고전문학이며, 그러한 표현은 오늘날의 한국어에도 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문학 작품은 한국어 교육의 중요한 텍스트가 된다.

둘째, 한국인의 언어 생활사에서 삶과 세계를 인식하는 틀과 지향하는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고전문학이다. 따라서 고전문학은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담은 텍스트가 되어줌으로써 한국어를 고급 수준에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적합한 제재가 된다.

셋째, 한국의 고전문학은 인류사에서 한국인이 성취한 전통과 정신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로 이루어진 고전을 배우는 것은 한국문화가 세계문화의 일원으로서 이룬 최고의 성과를 이해하는 것이다.²³⁾

넷째, 고전문학은 그 자체가 교훈과 교양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감정을 정화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섯째, 고전문학은 당대인들의 생활과 관념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세적 사회와 문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매개체가 되며, 고전어로서의 일상 언어와 특정한 어휘들은 변별적으로 학습하면서 실제적인 언어들을 간접적, 통합적 방법으로 배울 수 있다.²⁴⁾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한국어 문화교육에 고전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전문학 텍스트 중 설화는 구비전승 되면서 민중의 사상과 감정, 풍습, 세계관 등을 투영하고 문학적으로 완결된 구조 속에 감동과 흥미를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데 중요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전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중요성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연구가 부진한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문법교육 측면에서 볼 때, 고전문학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문장이 길고 난해하면서 생경하여 외국인 학습자가 배우기에 어려움이 많다.

둘째, 어휘 교육의 측면에서도, 고대어와 한자어 등의 난해함도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장애가 된다.

23) 양민정, 앞의 논문 2003, 285쪽 재인용.

김종철, 『한국고전문학과 한국어교육』(『한국어교육』1, 서울대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2002)

24) 양민정, 앞의 논문, 2003, 285쪽.

셋째, 실용적 목적의 측면에서, 취직이나 관광 등의 현실적 목적을 가진 외국인 학습자에게 고전문학은 즉각적 교육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텍스트가 되지 못한다.

넷째, 문화의 관점에서 중세적 한국인들의 낮설고 독특한 문화가 현실감과는 거리가 있게 느껴진다.²⁵⁾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고전문학이 주는 교육적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문학을 활용하여 학습할 경우 다음과 같은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의 전통문화를 학습함으로써 현대문화의 제 현상도 이해가 쉬워질 것이다.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에 대한 문법, 어휘 등의 언어적 구사로 인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다양하고 다채로운 한국어 구사법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 텍스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전 문학작품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이끌어 내고 사고력을 신장시키며, 나아가 자국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문화적 차이와 다름을 인식할 수 있는 효과적인 텍스트 중 하나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원류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한국문화 전통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고전문학 중에서도 설화는 개인적인 창작 이전의 문학으로서 민족의 전통적 요소와 원형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집단적인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설화는 오랫동안 한국인의 삶과 함께 해 온 집단적 공동 작품으로 한국인의 가치와 및 신앙, 민족적 풍습, 정치적 질서, 사회 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제재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설화는 문자 이전 시대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사회 구성원의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 사상, 정서, 가치관 등 녹아들어 있다. 그래서 설화작품은 그 민족의 생활문화와 정신문화 등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그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주고 그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화는 일반 백성들에 의해 전파·전승되어 왔으므로 그 이야기 속에는 민중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설화의 주제는 인간행위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고, 고난이나 적대자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낙관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다. 행복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야 누

25)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55쪽.

릴 수 있다는 것과 부지런하고 진실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는 민담적 운명론을 내재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선인들의 생활 속에서 얻은 지혜나 교훈,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용기, 신념 등을 통해 독자들은 윤리적인 교훈은 물론, 인생이라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우치게 된다. 그리고 설화는 과거에만 존재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오늘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남으로써 물리적인 시·공간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설화의 가치는 한국어 교육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우선, Eric. k. 테일러(Taylor)는 ESL 교실에서 설화는 문학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훈이 담긴 사회·문화적 표현으로서, 언어교육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강조한다. 특히 설화의 문화적 요소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할 때 필수적인 문화인식(Cultural awareness)을 계발함으로써, 상이한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내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²⁷⁾

최운식(2002)은 설화의 교육적 성격을 여섯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²⁸⁾ 첫째, 설화는 상상력의 소산이므로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설화는 말로 표현된 것이므로 언어능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구연을 통해 전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말하기, 듣기 능력 신장에 중요한 몫을 한다. 셋째, 설화를 통해 한국인다운 삶의 여러 가지 방식을 배우며 한국적 정서와 가치관을 함양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 넷째, 설화는 문화적 즐거움과 함께 충, 효, 우애, 신의 등의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한다. 다섯째, 설화 속에는 우리 조상의 풍속, 습관, 생활, 사상, 신앙들이 녹아 있고 곳곳한 힘과 슬기 빛나는 지혜와 소박한 꿈 등이 융해되어 있으므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여섯째, 대면을 통한 구연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의 인간관계가 깊어진다.

이는 외국인의 아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지만, 다섯 번째 항목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부분을 제외한다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성희(1999)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설화를 활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²⁹⁾ 첫째,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가 녹아 있는 설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인의 심성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에 수록된 설화의

26) 최운식 외, 『설화·고소설 교육론』(민속원, 2002), 15~16쪽.

27) 원서의 'folktale'이 전래동화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저자의 저술 의도는 아동만으로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전래동화보다는 설화라고 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E. k. Taylor 저, 이희숙 외 역, 『전래동화와 언어교육』, 한국문화사, 2007, 3~25쪽.)

28) 최운식, 앞의 책, 2002, 36~37쪽.

29) 이성희,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방안』(『한국어교육』 제 10-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9), 261~265쪽.

경우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셋째, 효사상 등 유교적 윤리와 같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관습 및 가치관 등이 반영되어 있어서 한국인의 일반적인 관습과 예의범절, 미덕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제시해 줄 수 있다. 넷째,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기 어려운 속담이나 관용어구등 설화에 나온 어휘를 쉽게 이해하고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다. 다섯째, 설화의 감동, 흥미, 교훈적 요소들이 학습 의욕을 더욱 극대화 시킨다. 여섯째,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호소하는 설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양민정(2006)은 설화 자료의 읽기 과정을 통해서 수준 있는 한국어를 배우고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의 학습도 가능하다고 보았다.³⁰⁾ 한국적인 특수성을 지닌 신화를 통해서 전통적 한국문화 또는 현대 한국문화를 연계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으며, 민담의 경우는 분량이 짧고 서사구조가 복잡하지 않으며 흥미중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업에도 용이하다. 구비문학으로서 민중문화의 결집체라는 점에서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민족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서 자국의 유사 민담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양국 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비교와 상호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설화 문학은 세계 문학과의 보편성과 한국인의 특수한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텍스트 자료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학적 감동과 줌과 문화적 특성을 이해시키는 이중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안미영(2008)은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문학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³¹⁾ 첫째, 설화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 생활 문화를 학습하기 적합한 텍스트라는 점이다. 설화문학은 구비전승 되는 민중문학으로서 그 시대와 사회를 사는 사람들에 의해 재해석되고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문학이다. 한국의 설화는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한국 사회의 민족적·민중적 생활 감정과 습속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서 이를 통해 한국문화를 간접 경험할 수 있다. 둘째, 설화는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설화는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부터 오랜 세월동안 생명력을 갖고 전승되어 왔다. 당대에 널리 이야기 되던 설화는 어느 순간 사라지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까지 구연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설화들은 오랜 시간동안 한국인들과 함께 숨을 쉬고 있는 가치 있는 작품들이다. 다시 말해서 재미와 교훈을 함께 줄 수 있는 작품으로 검증받은

30) 양민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방안 연구-한국고전문학을 중심으로-」(『국제지역연구』 제 9-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6), 112 ~ 114쪽.

31) 안미영, 「한국어교육에서 설화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본 한국의 문화」(『정신문화연구원』 제31-4호, 2008), 113~114쪽.

것들로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크다. 셋째, 설화는 비교·문화적인 학습방법으로 언어와 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자료이며 이를 통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설화는 민족적 특수성을 반영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종족과 다른 문화권에도 모국의 유사한 유형이나 화소가 발견되는 보편성을 내재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텍스트 읽기 과정에서 문화의 차이를 비교·대조함으로써 한국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설화를 비교·대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자국 설화를 통하여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식시켜줄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활용의 가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설화는 한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한 사회의 공동체 혹은 민족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의 소산이므로 문화적 특성과 전통을 가르치는 바람직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 사회의 민족적, 민중적 생활 감정을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설화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독자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설화의 흥미성과 문화적 즐거움은 학습자들에게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삶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길러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설화는 한 민족의 고유한 개별성과 함께 인류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설화를 활용하여 가르친다면 학습자들에게 한국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교육할 수 있어 효율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넷째, 설화는 학습자의 네 가지 언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설화가 말로써 구연·전승 되어 왔기 때문에 말하기와 듣기측면에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설화는 읽기자료로서 효용성도 크며 쓰기활동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설화는 분량이 비교적 짧고 서사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습자는 물론 교사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은 효율적인 학습 제재이다. 이는 설화가 지닌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측면에서도 그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비교문화적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문화교육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독일 중국 일본 등의 '신데렐라'형 텍스트와 「콩쥐팍쥐」의 구조를 비교·분석하게 될 것이다.

Ⅲ. ‘신데렐라’형 설화의 구조 분석

「콩쥐팥쥐」 설화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설화 중 하나이다. 「콩쥐팥쥐」 설화는 1929년 최남선에 의해 처음 주목받을 때부터 「신데렐라」와 비교되어 논의되어 왔다.³²⁾ 최남선은 「콩쥐팥쥐」 설화가 ‘신데렐라’와 같은 유형이라고 언급하였다. 두 설화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김태준이 『조선소설사』에서 언급한 바도 있고, 김기동도 『한국고대소설개론』에서 우리나라 설화 「콩쥐팥쥐」와 몇 개의 외국 ‘신데렐라’형의 설화를 비교·분석하여 가정 비극을 나타내는 계모담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또 이 유형의 설화는 본래 혼인담이 중심이었으나 계모와의 관계로 윤색되어진 작품으로 본 것³³⁾도 있고, 이 이야기를 약한 계모 이야기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이의 전승 양상과, 이야기의 구조와 의미를 구명한 연구³⁴⁾도 있다. 이러한 두 설화의 비교 연구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각 나라의 ‘신데렐라’형의 설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여러 나라의 유사설화 비교연구를 통하여 설화를 통해 볼 수 있는 인간의 보편성을 발견하고, 나아가 비교 문화적 차원에서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찾아내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공용되고 있는 안티 아르네(Antti Aarne)와 스티스 톰슨(Stith Thompson)의 분류에 따르면 ‘신데렐라’ 유형의 설화는 510, 510A에 속한다. 510은 ‘신데렐라’ 이야기와 함께 아버지와의 불화로 집에서 쫓겨난 셋째 딸의 성공담인 「골풀모자」가 함께 포함된 공의의 유형이다. 510A는 그림(Grimm)형제와 샤를 빠로(Charles Perrault)의 동화로 우리에게 익숙한 「신데렐라」 이야기만이 해당하는 협의의 유형이 있다.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협의 유형인 510A에 해당하는 설화로 한정하여 한국, 독일, 중국, 일본의 대표적 설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AT 『유형분류집』 510A 제시된 AT510A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다.³⁵⁾

1. 학대 받는 여주인공

- (a) 주인공은 계모와 그 딸들에 의해 학대받으며,
 - (a1) 난로 위 또는 재 안에서 머물며,
 - (a2) 다 떨어진 옷-짚풀 모자나 나뭇조각으로 만든 망토 등을 걸치고 있다.

32) 최남선, 『육당 최남선 전집』 제9집 (현암사, 1974), 405~409쪽.

33) 이관일, 「콩쥐팥쥐 이야기 재고」 제6.7합집(『국어국문학회』, 건국대학교 한국고유문화연구소, 1971), 24~39쪽.

34) 최운식, 「계모설화 연구」(『한국의 민속』 제 3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86), 1~34쪽.

35) 안티 아르네(Antti Aarne), 스티스 톰슨(Stith Thompson), 『유형분류집(The Types of the Folktale)』, 1928.

2. 신이한 원조

여주인공이 (집 또는 낮선 이의 집에서)하녀로 일하는 동안 그녀는,

(a) 죽은 엄마,

(b) 엄마의 무덤에서 자라난 나무로부터 조연과 보살핌을 받고 먹을 것을 얻는다.

3. 왕자와의 만남

(a) 여주인공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자와 여러 번 춤을 추고 왕자는 그녀를 붙잡고 싶지만 실패한다. 또는 그녀가 왕자에게 발견되는 곳이 교회이다.

4. 정체 확인

(a) 여주인공은 신발 시험을 통해 정체가 드러난다.

5. 왕자와의 결혼

이처럼 협의의 ‘신데렐라’ 유형의 설화는 계모에게 학대받던 전처 딸이 협조자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신발 시험을 거쳐 높은 신분의 배우자와 혼인하는 이야기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와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볼 때, 각 국가마다 510A 유형에 해당하는 신데렐라 유형의 설화 작품이 많기 때문에 설화 선정 기준을 세워 분석하고자 한다. 단, 독일 설화의 경우에는 안티 아르네와 스티스 톰슨이 그림(Grimm)형제의 「신데렐라」 이야기를 510A 유형 설화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번역한 자료를 바탕으로 독일 설화의 기본 서사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을 제외한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으로 설화를 선정하여 공통 서사구조를 추출하고자 한다.

첫째, 구비로 전승된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신데렐라’ 유형의 설화는 본래 문헌이 아닌 구비로 전승되던 자료적 속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510A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정의에 합당한 자료를 선정한다. 예컨대, 계모와 전처 딸이 갈등의 주체로 설정되어 있고, 계모의 학대, 원조자의 도움, 신발시험, 높은 신분의 배우자와 혼인 등과 같은 모티프를 핵심적으로 포함하는 자료를 선정한다. 셋째, 설화 제목과 모티프 상 ‘신데렐라’ 유형의 설화와 공통점을 공유할 지라도, 심각한 변이와 핵심적인 모티프 누락 등으로 다른 유형의 설화로 간주되는 자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넷째, 전문가에 의해 조사·채록된 자료를 원칙으로 하며 기록자에 의해 가필·수정된 자료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신데렐라’ 유형의 설화를 한국, 독일, 중국, 일본, 네 나라의 대표적 설화를 찾아 기본 구조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설화 「콩쥐팍쥐」와 각 나라별 설화와 비교·분석한 후 한국 설화 「콩쥐팍쥐」에 내재된 한국 문화적 특성을 추출하여 이를 한국 문화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모형과 과정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1. 독일, 중국, 일본의 설화

1) 독일의 「재투성이」

앞에서 제시한 설화 선정 기준에 따라 독일 설화 중에서는 그림형제의 「재투성이」³⁶⁾를 분석 텍스트로 선정한다. 이 이야기는 510A ‘신데렐라’ 유형의 대표설화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의 서사구조 분석을 위하여 「재투성이」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부자의 아내가 외딸을 두고 죽자 아버지는 재혼하여 새 부인과 두 딸을 얻는다. 새어머니와 두 딸은 전처의 딸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괴롭혔다.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 미사 후 새 부인과 딸들에게 선물을 사다 주는데, 재투성은 개암 나뭇가지를 꺾어 달라고 한다. 개암 나뭇가지를 아버지에게 받은 재투성은 그 나무를 어머니 무덤에 심었다. 그리고 그 나무는 크게 자랐고 그 곳에서 그녀가 기도할 때마다 흰 작은 새가 날아와서 원하는 것을 주었다.

임금님이 왕자의 아내를 고르기 위해 3일 동안 아름다운 처녀들을 무도회에 초대했는데 새어머니와 두 딸은 참석하지만 신데렐라에게는 재 속 콩 한 접시를 두 시간에 안에 주워 놓으면 데려간다고 한다. 재투성은 비둘기의 도움으로 접시를 채웠지만, 새어머니는 다시 콩 두 대접을 한 시간 안에 재 속에서 줍는다면 데리고 간다고 이야기한다. 다시 비둘기의 도움으로 그 과제를 해결하였지만 새어머니와 딸은 재투성이만 집에 두고 잔치에 참석한다. 재투성은 죽은 어머니의 무덤으로 가서 울고 있는데 새의 도움으로 옷과 무도화를 받아 그것을 입고 무도회에 가서 왕자님과 춤을 춘다. 재투성은 무도회가 끝나기 전 재빨리 집으로 와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이틀 동안 반복되었다. 사흘째 되는 날, 춤이 끝나고 재투성이가 뛰어 내려갈 때 왕자가 미리 계단에 칠해 놓은 송진 때문에 신발이 계단에 붙게 된다. 결국 재투성은 신발 하나를 계단에 놓아두고 집으로 돌아온다. 왕자는 재투성이가 남긴 신발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 신발이 맞는 아가씨를 아내로 삼겠다고 이야기한다. 왕자는 신발 주인을 찾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부자의 집에 도착한다. 그 집에서 새어머니의 큰 딸과 둘째 딸 신발을 신어 보았으나 너무 작아 들어가지 않았다. 큰 딸은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신발을 억지로 신고 작은 딸은 발뒤꿈치를 잘라 신발을 억지로 신고 왕

36) 그림형제, 「Aschenputtel」, 『독일민담설화집』 (을유문화사. 김창환 역, 1981), 323~325쪽.

자를 따라가지만 재투성이의 어머니 무덤을 지나갈 때 개암 나뭇가지에 앉자 있던 비둘기 두 마리에 의해 신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탄로가 난다. 다시 부자의 집으로 간 왕자는 재투성이를 찾아 신발을 신어 보게 하였다. 그 신발은 재투성이의 발에 맞았고 왕자는 기뻐 하며 재투성이를 아내로 맞이한다. 재투성이가 결혼식을 올리려 성당으로 갈 때 언니들은 흰 비둘기가 눈을 쪼아버려 한평생 볼 수 없게 되는 벌을 받았다.

이 설화의 서사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10개의 단락으로 제시할 수 있다. 즉, 결혼가정의 발생(A)→ 계모의 학대(B)→ 원조자의 도움1(C)→ 계모가 부여한 과제(D)→ 원조자의 도움2(E)→ 축제의상 획득(F)→ 신발 분실(G)→ 신발주인 탐색(H)→ 결혼(I)→ 악인 처벌(J)로 구성되어 있다.

- A. 친모가 외딸을 남기고 죽자 아버지는 재혼으로 계모와 두 딸을 맞이한다. (결혼 가정의 발생)
- B. 계모와 이복자매는 재투성이에겐 고된 일을 시키고 괴롭힌다. (계모의 학대)
- C. 계모와 이복자매가 괴롭힐 때 마다 흰 새가 재투성이를 도와준다. (원조자의 도움1)
- D. 계모는 무도회에 가고 싶은 재투성이에겐 재 속에 있는 콩을 정해진 시간에 줍는 과제를 부여한다. (계모가 부과한 과제)
- E. 비둘기의 도움으로 재 속에 콩을 줍는 과제를 해결한다. (원조자의 도움2)
- F. 재투성이가 죽은 어머니 무덤에서 울고 있자, 새의 도움으로 옷과 신을 얻어 몰래 무도회에 참석한다. (축제의상 획득)
- G. 왕자는 재투성이를 아내로 맞고 싶지만, 그녀는 신발을 남기고 사라져버린다. (신발 분실)
- H. 왕자는 남겨진 신을 단서로 재투성이를 발견한다. (신발주인 탐색)
- I. 재투성이는 왕자와 결혼한다. (결혼)
- J. 계모의 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벌을 받는다. (악인 처벌)

이 설화의 경우, 한국의 설화 「콩쥐팍쥐」와 달리 주인공인 재투성이의 결혼 이야기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재투성이가 계모와 언니들의 학대를 원조자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신발 분실과 탐색과정을 거쳐 왕자와 결혼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여기서 주인공 재투성이를 돕는 협조자는 흰 새와 비둘기로, 방해자는 계모와 이복자매로 나타나고, 그녀가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의 목표는 행운 쟁취이며 이는 작품에서 왕자와의 결혼으로 구체화 된다.

2) 중국의 「회이꾸냥」

중국 설화 「회이꾸냥」³⁷⁾의 자료 조사와 선정은 한국 설화 「콩쥐팍쥐」 경우보다 까다롭다. 우선, 유형분류집 및 색인집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마다 언어가 달라서 각기 다른 자료명칭을 사용하여 자료의 통일성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 설화 「회이꾸냥」은 510A 유형 설화에 해당되므로 앞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김혜정(2012)은 중국에서 전승되는 ‘신데렐라’유형의 설화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와 유형분류집에 언급된 자료와 『中華民間古事集成』(全33卷)과, 『中華民族古事大系』(全16卷), 『西洋雜俎』, 지역 문화단체의 조사결과물이나 개별 연구자들 조사 자료집을 검토하여 추출한 자료들을 69편을 목록화 한다. 그리고 이 자료들 중에서 다시 510A ‘신데렐라’유형의 설화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여 47편으로 그 범위를 좁힌다. 「회이꾸냥」설화의 공통 서사단락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 A. 친모가 주인공을 남기로 죽자 아버지는 재혼하여 딸을 얻는다. (결혼 가정의 발생)
- B. 계모가 주인공에게 소 돌보기, 실 짓기, 나무하기 등의 일을 시킨다.(계모의 학대)
- C. 돌보던 소가 주인공의 일을 도와준다.(원조자의 도움1)
- D. 계모가 주인공을 도와준 소를 죽이고, 주인공은 그 사체를 매장한다.(소의 도살)
- E. 계모는 주인공이 축제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곡식 고르기, 물 길기 등의 일을 시킨다.
(계모가 부과한 과제)
- F. 새가 물통의 구멍 막는 법과 곡식 고르는 방법을 알려준다. (원조자의 도움2)
- G. 매장했던 소의 사체로부터 신발, 옷 등을 획득한다. (축제의상 획득)
- H. 주인공은 축제에 참가하여 장래의 배우자를 만난다. (축제 참여)
- I. 주인공은 훌륭한 배우자와 혼인을 한다. (결혼)
- J. 계모와 그 딸이 모의해서 주인공을 물에 빠뜨려 죽인다. (선인의 죽음)
- K. 계모의 딸이 주인공 대리행세를 한다.(악인의 대리 행세)
- L. 주인공은 새, 대나무 등으로 환생과정을 거쳐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다.(환생)
- M. 주인공은 배우자와 재회하고 계모와 그 딸은 처벌된다. (악인 처벌)

37) 김혜정은 중국의 ‘신데렐라’형 설화 69편중에서 510A형에 해당하는 설화를 47편으로 범위를 좁히고 그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설화 510A 「회이꾸냥」기본 서사구조를 파악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김혜정, 「한·중 신데렐라 유형 설화 비교 연구 - 한국의 <콩쥐팍쥐>와 중국의 <회이꾸냥>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28~47쪽.)

이 공통 서사단락을 바탕으로 47편의 자료의 「회이꾸냥」 설화를 유형화하면 다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노동형은 서사 구성이 결손 가정의 발생(A)→ 계모의 학대(B)→ 원조자의 도움1(C)→ 소의 도살(D)→ 축제의상 획득(G)→ 악인 처벌(M)로 전개된다.(1편 전승) 이 유형은 주인공이 계모로부터 부과 받은 노동 과제를 원조자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혼인형은 결손 가정의 발생(A)→ 계모의 학대(B)→ 원조자의 도움1(C)→ 소의 도살(D)→ 계모가 부과한 과제(E)→ 원조자의 도움2(F)→ 축제의상 획득(G)→ 축제 참여(H)→ 결혼(I)→ 악인 처벌(M)로 이루어진다.(10편 전승) 그러므로 이 유형은 계모로부터 학대받던 주인공이 원조자의 도움으로 과제를 극복하고 신발시험을 통해 높은 신분의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는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환생형은 결손 가정의 발생(A)부터 악인 처벌(M)까지 13개의 단락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34편 전승) 결손 가정의 발생(A)부터 결혼(I)까지는 혼인형과 일치하고, 혼인 이후에는 선인의 죽음과 환생과정을 통하여 배우자와 재회하고 악인은 처벌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회형은 결손 가정의 발생(A)→ 계모의 학대(B)→ 원조자의 도움1(C)→ 소의 도살(D)→ 축제의상 획득(G)→ 선인의 죽음(J)→ 환생(L)→ 악인 처벌(M)로 전개된다.(2편 전승) 선인의 죽음(I)과 환생(L)과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환생형과 유사하나 축제참여(H)나 결혼(I)단락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 자료들은 환생한 주인공이 부친과 재회하는 과정을 중심서사로 다룬다.³⁸⁾

이 4가지 하위 유형 중에서 환생형의 「회이꾸냥」 설화가 중국의 중원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확인되며, 총 34편이 채록되어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에 비하여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 또한 자료의 편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간의 변이의 폭이 크지 않고, 안정적인 서사단락을 공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3가지 유형의 기본 서사단락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회이꾸냥」 설화 유형 중 환생형에 해당하는 설화를 대표 유형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회이꾸냥」의 기본 서사구조는 결손가정의 발생(A)→ 계모의 학대(B)→ 원조자의 도움1(C)→ 소의 도살(D)→ 계모가 부과한 과제(E)→ 원조자의 도움2(F)→ 축제의상 획득(G)→ 축제 참여(H)→ 결혼(I)→ 선인의 죽음(J)→ 악인의 대리행세(K)→ 환생(L)→ 악인 처벌(M)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중국 설화 「회이꾸냥」 또한 혼인담(A~I)과 결혼 후일담(J~M)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설화 「콩쥐팍쥐」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혼인담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계모와 그 딸의 학대를 원조자의 도움으로 극복하여 훌륭한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고, 결혼 후일담 내용에서는 주인공이 계

38) 김혜정(2012)은 중국 설화 「회이꾸냥」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필자는 그 유형에서 부녀형을 재회형으로 다시 명명하고자 한다. 이 유형 서사 단락의 중심내용이 부친과의 재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재회형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모와 그 딸에 의해 죽음에 이르지만, 환생과 변신을 통하여 다시 배우자와 재회하고 악인을 처벌하는 이야기로 마무리 된다. 이러한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볼 때, 「콩쥐팥쥐」와 「회이꾸냥」은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일본의 「고메후쿠 아와후쿠」

『日本昔話通觀』(全27卷)에 의하면 대략 일본 설화 「고메후쿠 아와후쿠」는 대략 300여 편이 채록되어 있다. 분포지역 또한 전국에 걸쳐있는 가운데 니카타현에서 가장 많이 채집되었고, 니카타를 경계로 하여 중부(中部)이남 지역에서의 전승은 극히 드물다.

일본 민속학자 關敬吾는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고메후쿠 아와후쿠」³⁹⁾ 서사구조를 추출하고 이를 20형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한 후 일본 설화 「고메후쿠 아와후쿠」의 대표적 설화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고메후쿠 아와후쿠」의 기본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 A. 친모가 고메를 남기로 죽자 아버지는 계모와 재혼한다. (결손가정의 발생)
- B. 계모는 고메와 아와 모두에게 밤줍기 과제를 주지만, 고메에게는 밑구멍이 뚫린 주머니로 밤을 줍게 한다. (계모의 학대)
- C. 하얀 새가 여의주 망치를 주고 주머니를 꿰매 밤을 가득 담아주었다. (원조자의 도움1)
- D. 계모와 아와가 축제에 가면서 고메에게 쌀 찢기를 시킨다. (계모가 부과한 과제)
- E. 새떼가 난제를 해결해 준다. (원조자의 도움2)
- F. 여의 망치를 3번 휘둘러 옷과 머리장식과 왜나막신과 하녀를 내어 축제에 간다.(축제의상 획득)
- G. 부잣집에서 고메를 신부로 맞이하러 오자 계모는 아와를 대신 내보내지만 부잣집 아들은 고메가 아니라고 한다. (신부 시험)
- H. 고메는 부잣집 아들과 결혼한다. (결혼)
- I. 아와도 시집가고 싶다고 하여 계모가 절구에 태워 돌아다니다 연못에 빠져 둘 다 죽는다. (악인 처벌)

39) 일본 민속학자 關敬吾의 「糠福米福の昔話-物語文學と關連して」에서 일본의 '신데렐라' 유형 510A형에 해당하는 일본 설화 「고메후쿠 아와후쿠」자료의 범위를 좁히고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설화 510A의 기본 서사구조를 파악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박연숙, 「한국과 일본의 계모설화 비교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78~88쪽.)

이러한 기본 서사단락을 중심으로 한 경우, 「고메후쿠 아와후쿠」의 하위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채집된 나키타현의 자료를 중심으로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죽은 어머니 원조 · 사라사라산형’은 계모의 학대(B)에서 악인 처벌(I)까지 서사구성은 같으나 신부시험(G)과정에서 신부를 가리는 전개가 달리 나타난다. 이러한 변이 양상을 가진 설화는 38편이 전승되고 있다.

‘산 귀녀 원조 · 시집가기형’은 가장 많이 채집된 유형이며, 원조자의 도움(C) 단락이 다르게 전개된다. 원조자는 죽은 어머니가 아니라 산 귀녀이고 그로 인하여 내용의 변화가 초래된다. 이 서사단락의 변화로 일부 내용이 달라졌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서사단락의 변화가 거의 없다.

‘산 귀녀 원조 · 사라사라산형’은 원조자의 도움1(C) 산 귀녀의 원조로 구성되고 신부시험(G)과정이 사라사라산형과 같은 우타 경쟁으로 구성되어 있다.

‘죽은 어머니 원조 · 시집가기형’은 결손가정의 발단(A)부터 악인 처벌(I)까지 서사구조를 갖춘 유형이다. 이 유형은 원조자의 도움1(C)에서 죽은 어머니나 하얀 새가 등장하여 주인공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다른 유형의 원조자의 비해 가장 오래 되었다.

‘의붓자식 고난형’은 밤줍기 과제(B)가 강조되어 독립한 유형이다. 이는 전처의 딸이 밤이 모이지 않아 난처해 있자 죽은 어머니가 나타나 도와주거나 원조자 도움 없이 계모에게 야단을 맞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노피형’은 계모의 학대(B)부터 의붓딸이 밤을 줍지 못하여 산속을 헤매는 내용은 ‘산 귀녀 원조 · 시집가기형’과 같으나, 그 이후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신발맞추기형’은 계모의 학대(B)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유럽 신데렐라형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은 「고메후쿠 아와후쿠」의 거의 모든 설화에 나타나지 않는 신발분실과 신발 주인 탐색과정이 나타난다.

이러한 유형들 가운데, 일본 민속학자 關敬吾는 ‘죽은 어머니 원조 · 시집가기형’에서 죽은 어머니나 하얀 새가 원조자로 등장하는 이야기 형식이 가장 오래 되었고, 산 귀녀나 노파, 지장의 원조자가 등장하는 형식으로 변이한 것이라 추정하였다.⁴⁰⁾

일본 설화 「고메후쿠 아와후쿠」의 기본 서사구조는 결손 가정의 발생(A)→ 계모의 학대(B)→ 원조자의 도움1(C)→ 계모가 부과한 과제(D)→ 원조자의 도움2(E)→ 축제의상 획득(F)→ 신부 시험(G)→ 결혼(H)→ 악인 처벌(I)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일본 설화의 기본 서사구조는 주인공의 결

40) 關敬吾, 『糠福米福の昔話-物語文學と關連して』, 97쪽, 박연숙 논문 재인용, 2009.

혼 이야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일 설화 「재투성이」와 유사하다. 하지만, 「고메후쿠 아와후쿠」는 한국, 독일, 중국 세 나라의 설화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신발 분실과 신발주인 탐색’ 과정이 서사구조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일본 설화만이 보여주는 특성으로 부자집 아들은 신발 탐색과정 없이 계모가 아와를 대신 내보지만 미래의 배우자는 고메의 외모를 확인하고 결혼한다. 이는 일본 설화 「고메후쿠 아와후쿠」가 보여주는 특수성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의 「콩쥐팍쥐」

보편적 유형을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거나 전문가에 의해 채록된 「콩쥐팍쥐」 설화 중에서, 앞에서 언급한 기준에 적합한 22편⁴¹⁾을 대상으로 공통 서사구조를 추출하고자 한다.

그 결과, 「콩쥐팍쥐」 설화는 계모에게 학대받던 콩쥐가 원조자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혼인하는 이야기와 혼인 이후 시련을 겪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자료는 콩쥐의 혼인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자료에서는 혼인 이후 이야기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22편의 한국 설화 「콩쥐팍쥐」에서 공통된 구조를 추출하여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한국 설화 「콩쥐팍쥐」 자료 목록 22편은 아래와 같다.

1. 「콩쥐팍쥐」, 『한국구비문학대계』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경기도)/2. 「콩쥐팍쥐」, 『한국구비문학대계』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경기도, 오수영)/3. 「콩쥐팍쥐」, 『한국구비문학대계』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경기도, 권은순)/4. 「콩쥐팍쥐」, 『한국구비문학대계』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남원, 최판순)/5. 「콩쥐팍쥐」, 『한국구비문학대계』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남원, 최씨)/6. 「콩조지 팍조지」, 『한국구비문학대계』5-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완주)/7. 「콩대기와 팍대기」(2), 『한국구비문학대계』6-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화순)/8. 「콩남이와 팍남이」, 『한국구비문학대계』7-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선산)/9. 「콩쥐팍쥐」, 『한국구비문학대계』8-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밀양)/10. 「백설공이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서귀포)/11. 「콩쥐팍쥐」,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1권, 평민사, 1987(평북)/12. 「콩쥐팍쥐」,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3권, 평민사, 1988(평산)/13. 「콩쥐팍쥐」,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6권, 평민사, 1990(연기)/14. 「콩쥐팍쥐」,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7권, 평민사, 1990(전읍·순창)/15. 「콩쥐팍쥐」,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9권, 평민사, 1992(영광)/16. 「콩쥐팍쥐」,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9권, 평민사, 1992(제주, 김내보)/17. 「콩쥐팍쥐」,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9권, 평민사, 1992(제주, 김여사)/18. 「콩쥐팍쥐」,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10권, 평민사, 1993(밀양)/19. 「콩쥐팍쥐」,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11권, 평민사, 1993(창녕)/20. 「콩레와 팍레」, 『한국의 민담』(임동권), 서문당, 1972(안동)/21. 「콩쟁이 팍쟁이」, 『남국의 전설』(전성기), 일지사, 1974(제주, 이화선)/22. 「콩의애기 풋의애기」, 『제주민담』(현용준), 제주문화, 1996(제주, 김영아)

- A. 친모가 콩쥐를 남기로 죽자 아버지는 팔쥐가 딸린 계모와 재혼한다. (결손가정의 발생)
- B. 계모가 콩쥐에게 발매기, 물 길기, 삼 삼기 등의 일을 시킨다. (계모의 학대)
- C. 하늘에서 내려온 소, 선녀 등이 콩쥐의 일을 도와준다. (원조자의 도움1)
- D. 계모가 팔쥐와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 곡식 찜기, 물 길기 등의 일을 시킨다.
(계모가 부과한 과제)
- E. 참새와 두꺼비가 나타나 콩쥐의 일을 도와준다. (원조자의 도움2)
- F. 하늘에서 내려온 소, 선녀 등이 콩쥐에게 신발과 옷을 마련해 준다. (축제의상 획득)
- G. 콩쥐가 잔치에 가다 잃어버린 신발을 장래의 배우자가 줍는다. (신발 분실)
- H. 콩쥐는 훌륭한 배우자와 혼인을 하게 된다. (결혼)
- I. 팔쥐가 콩쥐를 물에 빠뜨려 죽인다. (선인의 죽음)
- J. 팔쥐가 콩쥐의 대리행세를 하며 지낸다. (악인의 대리 행세)
- K. 콩쥐는 죽어서 꽃, 구슬로 환생하는 과정을 거쳐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한다. (환생)
- L. 콩쥐는 배우자와 재회하고 팔쥐와 계모는 처벌된다. (악인 처벌)

일반적으로, 한국의 「콩쥐팍쥐」 설화는 크게 4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노동형, 사망형, 혼인형, 환생형 등이 그것이다.

먼저 노동형은 서사 구성이 결손가정의 발생(A)→ 계모의 학대(B)→ 원조자의 도움1(C)으로만 이루어진다.(2편 전승) 이 유형은 계모가 콩쥐를 학대하기 위해 부여한 힘든 노동과제를 원조자가 나타나 해결하여준다는 내용으로 계모의 노동 학대와 그 해결이 서사의 중심이 된다.

사망형의 서사 구성은 결손 가정의 발생(A)→ 계모의 학대(B)→ 원조자의 도움1(C)→ 계모가 부과한 과제(D)→ 원조자의 도움2(E)→ 축제의상 획득(F)→ 선인의 죽음(I)으로 이루어진다.(2편 전승) A에서 E까지 구성은 다른 하위 유형들과 일치하지만, 결혼 서사 단락이 누락되고 계모와 팔쥐에 의해 콩쥐가 살해되는 선인의 죽음(I)단락으로 서사가 종결된다.

혼인형의 서사 구성은 결손 가정 발생의 발생(A)→ 계모의 학대(B)→ 원조자의 도움1(C)→ 계모가 부과한 과제(D)→ 원조자의 도움2(E)→ 축제의상 획득(F)→ 신발분실(G)→ 결혼(H)→ 악인 처벌(L)로 전개된다.(5편 전승) 이 중 악인 처벌(L)은 유동적이다.

환생형의 서사 구성이 결손가정의 발생(A)부터 악인 처벌(L)까지 12개 단락을 모두 함유한다.(13편 전승) 이 유형은 결손가정의 발생(A)에서부터 결혼(H)까지는 혼인형과 일치하는 서사 과정을 보이지만, 결혼 이후 콩쥐가 살해되었다가 다시 환생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배우자와 재회하는 내

용으로 구성된다.⁴²⁾

이 4가지 하위 유형 중에서 환생형 「콩쥐팥쥐」 설화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텍스트의 수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그러나 자료간의 변이의 폭이 크지 않고 안정적인 서사단락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3가지 유형의 기본 서사단락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환생형에 해당하는 설화를 대표 유형으로 선정하려고 한다.

따라서 한국 설화 「콩쥐팥쥐」의 기본 서사구조는 결혼가정의 발생(A)→ 계모의 학대(B)→ 원조자의 도움1(C)→ 계모가 부과한 과제(D)→ 원조자의 도움2(E)→ 축제의상 획득(F)→ 신발분실(G)→ 결혼(H)→ 선인의 죽음(I)→ 악인의 대리행세(J)→ 환생(K)→ 악인 처벌(L)로 이루어진다. 이 서사구조는 독일 설화 「재투성이」의 주인공의 결혼이야기까지는 동일하지만, 「콩쥐팥쥐」는 주인공의 결혼 이후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콩쥐팥쥐」는 주인공의 결혼을 기점으로 전반부 혼인담(A~H)과 후반부 결혼 후일담(I~L)으로 구성된 이중 서사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신데렐라'형 설화의 보편구조

지금까지 독일, 한국, 중국, 일본의 '신데렐라'형 설화의 서사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4개국 설화의 유사성과 개별성을 살펴볼 차례이다.

각 국가의 설화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서사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사 설화들은 구조적 유사성과 개별성을 함유하고 있어서 전자는 설화의 보편적 특성으로, 후자는 개별성 혹은 차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보편성)과 개별성(차이성)을 비교, 대조할 수 있게 한다면 각 국가의 설화가 가지는 개별적 특성을 학습자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설화 「콩쥐팥쥐」와 중국 설화 「회이꾸냥」의 경우 서사구조 상의 유사성을 내재하고 있다. 우선, 두 설화는 콩쥐의 혼인담 이야기와 결혼 후일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혼 과정 중에 신발 분실과 탐색 과정 유사하다. 이에 비하여 「재투성이」는 결혼 후 후일담이 없고 새어머니와 두 딸의 처벌 강도가 다른 설화에 비하여 약하다. 그리고 일본 설화 「고메후쿠와 아와후쿠」는 내용이 짧고, 잃어버린 신발이나 신발 탐색, 선인의 죽음, 악인의 대리행세, 원혼 환생과 변신, 배우자와의 재회의

42) 이것은 김혜정(2012)이 「콩쥐팥쥐」의미 구조를 중심으로 유형화한 것임을 밝혀둔다.

서사과정의 없으며 악인의 처벌 또한 「콩쥐팥쥐」 설화와는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

이러한 각 국가의 서사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설화 「콩쥐팥쥐」와 유사한 독일, 중국, 일본 설화의 공통적 서사구조를 추출하여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 A. 친모가 죽자 아버지는 계모와 재혼한다. (결혼 가정의 발생)
- B. 계모가 주인공을 학대한다. (계모의 학대)
- C. 원조자의 도움으로 주인공은 난제를 해결한다. (원조자의 도움1)
- D. 계모가 주인공에게 어려운 과제를 부과한다. (계모가 부과한 과제)
- E. 원조자의 도움으로 과제를 해결한다. (원조자의 도움2)
- F. 원조자의 도움으로 축제의상 획득한다. (축제의상 획득)
- G. 축제에서 미래의 배우자를 만난다. (축제참여)
- H. 미래의 배우자와 결혼한다. (결혼)
- I. 계모와 이복자매는 벌을 받는다. (악인 징벌)

따라서 한국 설화 「콩쥐팥쥐」와 유사한 다른 나라 설화와의 공통적 서사구조는 ‘결혼 가정의 발생(A)→ 계모의 학대(B)→ 원조자의 도움1(C)→ 계모가 부과한 과제(D)→ 원조자의 도움2(E)→ 축제의상 획득(F)→ 축제참여(G)→ 결혼(H)→ 악인 징벌(I)’의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이 설화들은 계모에게 학대받던 주인공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며 계모와 그 딸은 처벌받는 공통적인 이야기(A~I)구조를 보여준다.

〈표1〉 ‘신데렐라’형 설화의 서사구조

국가	독일	한국	중국	일본
작품	「재부성이」	「콩쥐팥쥐」	「희이꾸냥」	「고메후쿠와 아와후쿠」
내용 구조				
결혼가정의 발생	모친죽고 부친재혼	모친죽고 부친재혼	모친죽고 부친재혼	모친죽고 부친재혼
계모의 학대	고된 일과 부엌일을 시킴	나무호미로 밭 매게 함	소 돌보기, 나무하기 등 시킴	뿔린 주머니를 가지고 밤 줍기 시킴
원조자 도움1	흰 새가 도와 줌	황소가 도와 줌	황소가 도와 줌	하얀 새가 도와 줌

※ 소의 도살		계모가 돌보던 소를 도살하고 매장함		
계모가 부과한 과제	재 속에 콩 고르기	곡식 찧기, 물 길기 과제부여 함	콩과 깨 고르기	쌀 찧기 과제를 부여함
원조자 도움2	비둘기가 도와 줌	새와 두꺼비가 나타나 도와 줌	황소가 도와 줌	하얀 새가 도와줌
축제의상 획득	흰 새의 도움으로 옷과 신을 구하고 무도회 참여	황소의 도움으로 옷과 신을 구하여 잔치참여	소의 사체에서 옷과 신을 얻고 축제 참여	여의주 망치 도움으로 축제 참여
★신발 분실과 신발주인 탐색	신발을 잃어 버리고 왕자가 신발 주인을 찾음	신발을 잃어 버리고 배우자가 신발 주인을 찾음	신발을 잃어 버리고 배우자가 신발 주인을 찾음	
※ 신부 시험				고메 대신 아외를 내보내지만 고메가 아님을 앎.
결혼	왕자와 결혼	훌륭한 배우자와 결혼	훌륭한 배우자와 결혼	부잣집 배우자와 결혼
선인의 죽음		팔쥐에게 꼬여 연못에서 익사 당함	계모 딸의 계략으로 우물에서 익사 당함	
악인의 대리 행세		팔쥐가 콩쥐 대리행세를 함	계모 딸이 주인공 대리행세를 함	
환생		꽃, 구슬로 환생하고 원래 모습으로 변신함	새와 대나무로 환생함	
배우자와 재회		배우자와 재회함	배우자와 재회함	
악인 처벌	두 언니는 평생 앓을 볼 수 없는 벌을 받음	죽은 팔쥐를 계모에게 먹이고 계모 또한 죽음	계모와 동생은 벌을 받음	계모와 아와는 연못에 빠져 죽음

(※ 소의 도살은 중국 설화에만 있는 서사단락, ※ 신부시험은 일본 설화에만 있는 서사 단락이다. 그리고 ★ 신발 분실과 신발주인 탐색 서사단락은 독일, 한국, 중국에 있으며 이 서사단락은 축제참여에 포함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편적인 설화를 텍스트로 선정하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미 자국의 유사 설화를 통하여 이야기 구조를 인지하고 있다고 전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알고 있는 자국의 설화 구조를 바탕으로 한국 설화 「콩쥐팍쥐」의 서사구조를 이해하는 데 용이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유사한 이야기를 배경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콩쥐팍쥐」를 배우고 동시에 자국 설화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야기의 변화를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이야기 내용을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한국적인 문화적 특성과 차이점을 동시에 공부함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는 「콩쥐팍쥐」 설화를 배우면서 동시에 자국 설화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양국의 문화적 특성을 폭넓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신데렐라’형 설화 「콩쥐팍쥐」를 텍스트로 선정하게 되면, 설화의 보편적 특성과 함께 한국 설화의 개별적 특성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어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IV. 『콩쥐팥쥐』의 한국 문화적 특성

이제, 앞의 서사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설화 『콩쥐팥쥐』의 한국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 독일 설화 『재투성이』와 비교·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양국의 설화의 이야기 구조 및 요소가 다른 국가에 비해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서 양국의 설화를 비교·대조하는 과정에서 한국 설화의 문화적 특성을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국가의 설화를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한국 설화 『콩쥐팥쥐』의 한국적 문화적 요소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설화에 나타난 사건의 시·공간과 서사구조, 인물의 성격과 갈등, 주제와 세계관, 미의식 등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요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1. 사건의 시 · 공간과 서사구조

1) 사건의 시 · 공간

한국 설화 『콩쥐팥쥐』는 시·공간적 특징은 설화의 배경과 연관지어 살펴 볼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하여 독일, 중국, 일본 설화는 사건이 발생하는 구체적 시간과 공간이 언급되지는 않고 막연하게 제시된다. 이러한 배경적 특성은 설화 장르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설화의 내용 요소 분석을 통하여 볼 때, 『콩쥐팥쥐』의 공간적 배경은 평범한 농촌 마을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콩쥐팥쥐』 설화 내용 속에 원조자로 나타나는 황소나 계모가 콩쥐에게 주는 과제인 밭 매기, 곡식 찧기, 물 길기 등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밭 매기, 곡식 찧기, 물 길기 등은 농촌에 사는 한국 여성들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노동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설화 『콩쥐팥쥐』의 배경은 농경문화의 중심인 농촌 마을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설화 『재투성이』의 경우는 『콩쥐팥쥐』 설화처럼 구체적인 장소를 유추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부자이면서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과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는 부유한 귀족생

활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일 상류층의 생활문화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계모와 이복 자매들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온 후 그들의 학대가 시작된다. 따라서 주인공은 상류계층의 귀족생활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집안 부업일 위주의 노동과 이복 자매들의 심부름을 하는 하녀의 역할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설화의 전체적인 배경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장소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콩쥐팍쥐」의 경우, 주인공 콩쥐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이야기 서사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콩쥐는 계모가 부여한 과제를 원조자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고 동시에 아름다운 옷과 신발을 획득하여 참석한다. 콩쥐는 잔치에 참가하기 위해 가던 중에 배우자를 만나는 기회를 맞는다. 독일 설화의 주인공 재투성이는 신붓감을 찾기 위해 열린 왕자의 무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계모가 부여한 과제를 원조자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옷과 신발을 얻어서 참석한다. 그 결과 재투성이는 무도회에 참석함으로써 왕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였고 이를 통해 왕자와의 결혼까지 하게 된다.

이 두 설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설화에 나오는 잔치와 독일 설화의 무도회는 이야기 서사구조에서 주인공이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장소의 역할을 하지만,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잔치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이웃 사람과 친척 등이 함께 모여서 흥겹게 즐기는 문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잔치 문화는 한국 문화적 요소로 독일 설화에 등장하는 무도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두 설화에서 주인공들은 잔치와 무도회에 참여하기 위해 아름다운 옷과 신을 입고 참가하여 배우자를 만나는 기회를 획득한다.

그러나 「콩쥐팍쥐」의 잔치는 단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즐기는 축제라는 문화적 의미를 포괄한다. 이에 반하여 「재투성이」에 나오는 무도회장은 축제가 열리는 장소이다. 이 무도회장에서는 귀족들이 파티복을 입고 남녀가 춤을 추며 즐기는 사교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상류계층 귀족의 생활문화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교 활동은 우리나라 잔치처럼 모든 참가자가 잔치의 의미를 공유하고 서로 축하하며 즐기기 보다는 남녀가 관심 있는 이성을 만나서 춤을 추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장소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 서사구조

한국 설화 「콩쥐팍쥐」의 서사구조는 콩쥐의 혼인담과 결혼 후일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 설화

「재투성이」의 경우에는 혼인담 이야기만을 가지고 있으나, 「콩쥐팥쥐」는 콩쥐의 혼인담과 결혼 후일담 모두 비중 있게 다루고, 결혼 후에도 계모와 팥쥐의 학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결국 콩쥐가 죽음을 맞게 한다고 하지만 죽은 콩쥐는 꽃에서 구슬로 다시 환생하여 결국 본연의 모습을 찾고 자신을 죽인 계모와 팥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야기의 끝을 맺고 있다.

「콩쥐팥쥐」의 후반부 결혼 후일담 내용에서는 주인공이 다시 계모와 그 딸에 의해 살해되었다가 그 영혼이 다시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으로 서사가 완벽하게 종결된다. 이처럼 주인공이 혼인을 전후로 두 차례 걸쳐 시련을 겪는 이중 서사구조는 「콩쥐팥쥐」에서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이 이중 서사구조에서 주인공은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시련과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

전반부의 시련은 주인공의 친어머니의 죽음과 계모에 의한 노동 학대이다. 이 시련을 주인공은 원조자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결국 혼인에 이르는 행운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전반부에서 주인공이 겪는 시련은 김매기, 물 길기, 곡식 고르기 등 육체적 노동으로 전통사회에서 여성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경제 활동이며 가사노동이다. 이를 훌륭하게 수행해낸다는 것은 주인공이 노동적, 또는 경제적으로 능력을 겸비한 존재임을 의미한다. 이는 곧 콩쥐가 사회 일원으로 혼인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성인 여성으로서 한국 사회의 보편적 여성상으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설화 「콩쥐팥쥐」의 후반부 서사구조는 결혼한 콩쥐가 계모와 팥쥐에 의해 연못에 빠져 죽은 후 여러 번의 환생 과정을 거쳐 자신의 모습을 회복한 후 계모와 팥쥐에게 보복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후반부 서사구조에서는 콩쥐를 도와주는 원조자로 동물이나 소로 환생한 어머니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결혼 후, 콩쥐는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린 소녀가 아니라 성인 여성으로서 자신의 고난을 스스로 극복하여 팥쥐에게 빼앗긴 선비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후반부 서사구조에서 콩쥐는 죽은 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여러 번의 환생을 거쳐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고 배우자와 재회한 뒤, 결국 계모와 팥쥐를 처벌하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후반부 서사에서 콩쥐는 전반부 서사에서 보여주었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더 이상 원조자들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이는 후반부 이야기가 성인인 콩쥐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 고난을 스스로 극복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후반부의 콩쥐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또한 선비의 이웃에 사는 노파로서 전반부에 나타나는 원조자와 달리 어머니가 환생한 황소나 동물들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이웃에 사는 노파로서 현실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여러 번의 환생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 배우자와 재회한 주인공은 그동안 잃어버린 아내의 자리를 찾기 위해 입사의식을 치르는 내용이 종종 발견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구렁덩덩

신선비], 「손 없는 색시」, 「우렁각시」 등의 설화를 들 수 있다.⁴³⁾

이렇게 이중 서사구조 측면으로 살펴보았을 때, 「콩쥐팥쥐」 구조는 혼인담으로만 이루어진 「재투성이」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이며 이 서사구조의 차이를 통하여 우리는 주인공 콩쥐를 통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결혼 후일담에서 콩쥐는 자신의 고난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하였다. 이와 같이 콩쥐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기 때문에 콩쥐에게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적용할 수 없다.⁴⁴⁾ 즉, 독일 설화 「재투성이」의 주인공에 비하여, 콩쥐는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남자에만 의지하지 않는 여성으로서 콩쥐 스스로가 그녀의 고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닌 여성으로 그려진다. 이는 「재투성이」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녀와 다른 한국의 여성상으로 양국의 문화적 차이로 볼 수 있다.

「콩쥐팥쥐」 설화의 이중 서사구조에서 선인에게 부여되는 과제의 종류와 성격은 또한 「재투성이」와 확연히 다르다. 콩쥐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실용적이면서 농경사회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사일이다. 이야기 도입부에 부여된 과제인 밭매기는 전처의 딸인 콩쥐와 팥쥐에게도 같이 부여된다. 잔치에 가기 전에 계모가 부여한 과제들인 물 길기, 곡식 찧기 등도 농경사회에서 여성들이 하는 노동이다. 설화가 보여주는 농경사회에서 일은 학대의 행위가 아니다. 물론 콩쥐보다 팥쥐에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지만 계모는 팥쥐에게도 밭매기 일을 시키기 때문이다. 「콩쥐팥쥐」에서는 콩쥐의 미모보다는 능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 지향적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⁴⁵⁾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노동을 가치 있고 귀중한 생활의 일부분으로 여겨왔다. 노비가 있는 상류층의 부인이 비교적 한가한 일과를 보내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주부가 가사를 돌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노비가 있다 하더라도 상류층의 부인들은 의복 짓기, 음식하기에 책임이 있었고 손님 접대, 제사 지내기 등의 가문 유지에 필요한 일과 가족 간에 화목을 도모하는 일, 노비 부리는 일 등 관리적인 일을 직접 수행해야 했다.⁴⁶⁾ 이는 어떠한 형태의 노동도 하루계급의 상징으로 여기는 서양의 사고와 대조된다.⁴⁷⁾ 이와 같이 서양의 전통에서는 신데렐라가 재 사이에서 콩을 쪼는 일을

43) 신연우, 「<구렁덩덩신선비>설화의 결혼과 상징과 의미」(『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 25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121~150쪽.

44) 오윤선, 「세계의 신데렐라유형 이야기군 속에서의 <콩쥐팥쥐이야기>고찰」(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 2006), 269쪽.

45) 최윤식, 김기창, 『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집문당, 1998), 332~333쪽.

46) 김성희,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도서출판 신정, 2002), 76쪽.

47) 17세기에 여성의 노동은 솔직히 수치스럽고 부정직한, 즉, 존경스럽지 못하다고 분류되었다. 여성 노동자 자신 이외에도 그녀 가족의 남성들과 그녀와 함께 일하는 남성들이 창피하게 생각하였다. 비난을 당하는 이유가 여성이라는 성 때문에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개 가난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내를 일하게 하지 않고, 한가롭도록 해줄 수 있는 남성은 고

하거나 부엌일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품위가 떨어지는데 반하여, 한국 설화에서 콩쥐는 농경사회 문화 속에서 노동은 매우 가치 있는 행위이며, 이를 잘 해내는 것은 그녀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2. 인물의 성격과 갈등

한국 설화 「콩쥐팍쥐」의 성격과 인간상을 살펴보면, 주인공 콩쥐는 착하고 성실하며 자신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선인의 대표적 유형이다. 특히, 계모가 부여하는 과제가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콩쥐는 반항하기 보다는 순종적으로 시키는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에 반하여, 선인과 대립구도를 갖는 계모와 그의 딸 팍쥐는 악인의 전형적이며 대표적인 인물로서 선인에게 어려운 과제를 부여하며 괴롭히고 학대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인물이다. 이러한 악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인을 괴롭힌다. 이렇게 전형적인 성격을 가진 선인과 악인은 이야기의 지속적인 변화와 전개에도 그들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 평면적 인물 유형을 보여준다.

그리고 「콩쥐팍쥐」에서 선인 콩쥐는 혼자인 반면에 악인은 2명으로 계모와 그의 딸로 구성되어 있어 선인에 비하여 악인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설화는 서사 과정이 주인공의 결혼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일담 이야기로 이어짐으로써 선인과 악인의 대립구도가 지속된다. 그리고 혼인담에서 보이는 선인과 악인의 갈등보다 결혼 후일담에서는 갈등 구도가 더욱 첨예하게 그려진다. 그 대립 구도에서 선인은 악인에 의해 살해된다. 이러한 선악 구도의 첨예한 대립은 「콩쥐팍쥐」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이에 반하여, 「재투성이」의 경우, 악인은 계모와 그의 두 딸로 한국 설화 보다 악인의 수가 한 명 더 많음으로써 선인의 시련과 고난 또한 더욱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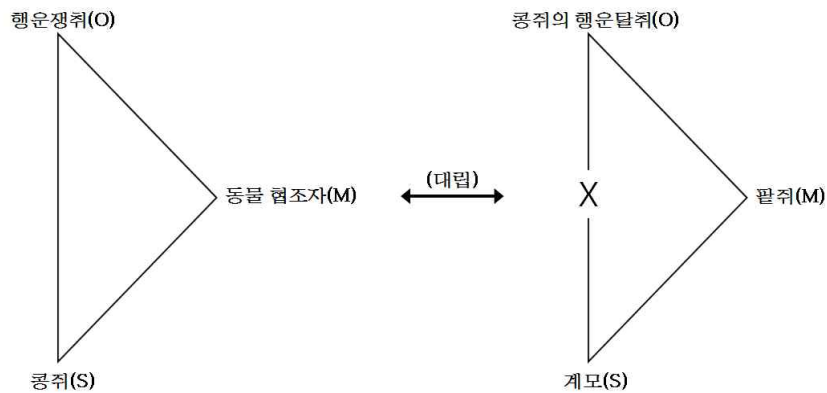
그러나 「재투성이」는 선인과 악인의 대립구도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주인공의 결혼이야기로 끝을 맺음으로써 인하여 「콩쥐팍쥐」에 비하여 선인과 악인의 대립구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야기의 결말 부분인 악인의 처벌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콩쥐팍쥐」에서 악인

상한 지위의 표시였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는 상업적으로 경제적인 새로운 생활 방식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김주숙, 『여성 노동의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155쪽.)

은 잔인한 처벌을 받는다. 예컨대, 계모는 자신 딸의 인육을 먹고 놀라서 죽음을 맞지만, 「재투성이」에서 악인의 처벌은 이복 언니들이 눈을 실명하는 정도에서 끝을 맺는다. 이러한 악인의 처벌을 통하여 볼 때, 「콩쥐팍쥐」에서 선인과 악인의 대립구도가 더욱 첨예하고 갈등의 강도 또한 고조된다고 볼 수 있다.

설화 속에서 등장인물은 중재자를 통하여 욕망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때, 주인공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어떤 협조자의 출현과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는 특성을 보인다.⁴⁸⁾ 등장인물들의 욕망의 갈등구조 분석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콩쥐와 계모의 욕망 추구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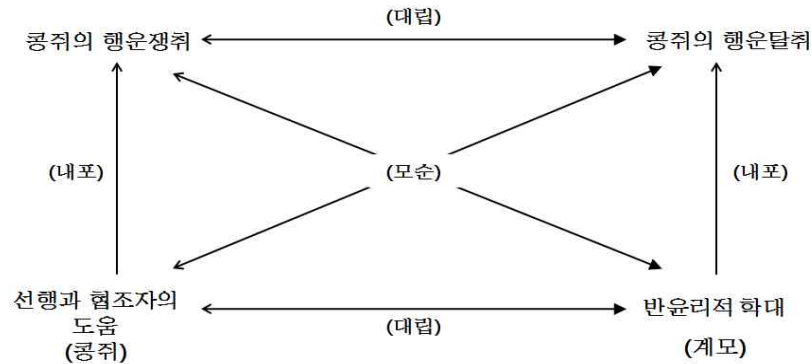
<그림 1> 콩쥐와 계모의 욕망 추구 과정



욕망의 주체(S)는 중재자(M)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욕망의 목표(O)를 성취한다. 「콩쥐팍쥐」에서 선인 콩쥐는 아버지의 재혼으로 계모와 그 딸에 의해 학대와 괴롭힘을 당한다. 이런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콩쥐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동물 협조자가 나타나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한다. 이에 반하여 악인 계모는 자신의 딸을 통하여 선인 콩쥐의 행운을 탈취하여 그 행운을 소유하고자 한다. 하지만 팍쥐를 통해 선인 콩쥐의 행운을 빼앗고자 했던 계모의 욕망은 선인 콩쥐에 의해 실패하고 그 결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선인과 악인의 욕망추구 과정을 이항대립구조를 통하여 분석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48) 안성수, 「욕망과 갈등의 통합적 연구방법 -소설의 인물을 중심으로-」 (『백록어문』 제 27집,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2014), 33~74쪽.

〈그림 2〉 「콩쥐팍쥐」의 이항대립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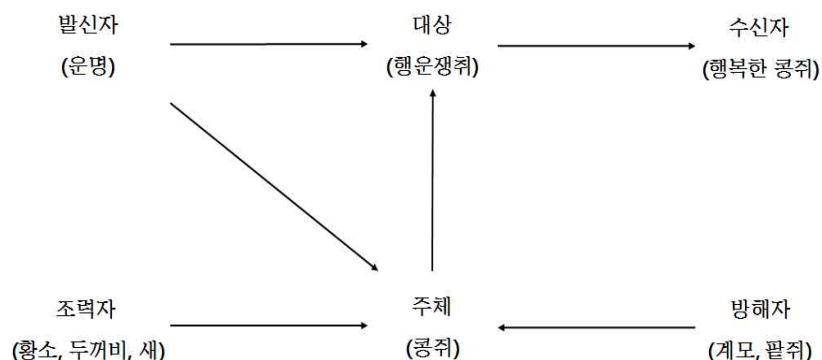


악인 계모는 콩쥐의 행운을 빼앗기 위해 콩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반윤리적 학대를 가한다. 결국, 선인 콩쥐는 계모와 그 딸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착한 성품과 동물 협조자의 도움으로 행운을 쟁취한다. 이러한 계모의 욕망과 선인 콩쥐와의 참여한 갈등은 선인 콩쥐가 승리함으로써 악인 계모는 딸도 잃고 잔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콩쥐팍쥐」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욕망 추구과정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상호관계로 파악하면 인물들을 전체적이고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런 등장인물의 상호관계를 인물의 구도⁴⁹⁾라고 부르는데, 이를 「콩쥐팍쥐」에 적용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콩쥐팍쥐」에서 주인공은 콩쥐이며 이 콩쥐가 목표로 하는 것은 행운을 쟁취하는 것이다. 발신자는 주인공이 대상을 찾아 나서게 하는 것으로 주인공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화에서는 운명이라고 볼 수 있다. 수신자는 대상을 통해 발신자와 소통하는 데 이 설화에서 수신자는 행운을 쟁취한 행복한 콩쥐라고 볼 수 있다. 조력자는 주인공이 대상과 일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도와주며 방해자는 이 진행을 방해한다. 따라서 이 설화의 조력자는 황소, 두꺼비, 새와 같은 동물들이며 방해자는 계모와 팍쥐이다. 그 다음으로 주인공과 발신자의 관계는 주인공이 자신의 내적 원의에 의해 어떤 특정 상태를 이루려고 할 때 이 원의가 발신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콩쥐는 운명에 의해 행운을 쟁취하고 수신자는 본인의 원하는 것을 획득하게 된다.

49) 이 인물구도는 러시아의 민담학자 프롭(V.Propp)이 러시아 민담을 통하여 유추한 31개의 등장인물의 역할을 프랑스 기호학자 그레마스(A.J.Greimas)가 다시 6개의 기능주-발신자, 수신자, 조력자, 방해자, 주어/주인공 그리고 대상으로 요약하여 등장인물 구도로 발전시켰다. (이지은, 『소설의 분석과 이해』,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133~142쪽.)

〈그림 3〉 「콩쥐팥쥐」 인물구도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관계 속에서 선인 콩쥐가 악인 계모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배우자와의 결혼 이후에도 지속되는 악인과의 갈등 속에서 죽음을 당하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환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콩쥐팥쥐」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환생모티프는 영혼과 생명에 대한 한국인의 전통적인 의식 구조를 보여준다. 선인 콩쥐는 죽은 후 재생과정에서 ‘(연)꽃→구슬’로의 환생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적 생명관⁵⁰⁾ 외에도 구슬이 부처의 사리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불교 신앙이 반영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⁵¹⁾ 주인공이 꽃으로 환생과정을 거치는 것은 한국의 경우 「바리데기」, 「이공본풀이」, 「할망본풀이」 등 다양한 무속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무속 신화에서 꽃은 곧 인간의 생명이며 영혼으로 묘사된다.⁵²⁾ 주인공이 환생과정에서 동물

50) 김환희는 우리의 「콩쥐팥쥐」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수성으로 주인공이 환생과정 ‘꽃→구슬’로 변하는 모티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제주도의 「차사본풀이」, 「원천강본풀이」 같은 무속신화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내세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김환희, 앞의 논문, 2004, 301~306쪽.) 그러나 주인공이 환생하는 과정에서 구슬 또는 보석으로 환생을 거치는 경우는 중국의 신강유오이자구치에 거주하는 석백족이 구연한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김환희는 왜 꽃, 혹은 구슬이 단독적으로 등장하거나 혹은 반드시 ‘꽃→구슬’의 순서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살피고 있지 않다. 즉, 꽃이나 구슬이 단독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꽃→구슬’ 순서인 것은 불교의 연화화생(蓮花化生)관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호태, 『벽화여, 고구려를 말하다』, 사계절, 2004, 116쪽.)

51) 불교에서는 생물은 태생(胎生), 난생(卵生), 습생(濕生), 화생(化生) 이상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출생한다고 본다. 이 중에서 스스로 홀연히 나타나는 화생만이 부모를 통한 탄생이라는 연을 끊은 유일한 정토적 탄생법이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연화화생(蓮花化生)관념으로 이는 태초를 상징하는 물로부터 태어난 연꽃 속에서 보주(구슬), 용, 새, 할머니, 천인(天人) 등이 태어나는 도상으로 표현된다. (전호태, 『벽화여, 고구려를 말하다』, 사계절, 2004, 118~119쪽.)

편무영, 「종교와 그림을 위한 서론-연화신인출생(蓮花神人出生) 신화(神話)의 글로컬리제이션」(『종교와 그림』, 민속원, 2008), 44쪽.

52) 신화에서 꽃은 잉태·출산을 의미하는 생불꽃과 죽음-부활을 의미하는 환생꽃으로 표상하고 있지만 사실 이 두 의미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 새 생명의 잉태는 자신은 죽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식물의 일생에서 차용한 신화적 상징의 표현이었다. 죽음은 새 삶을 이룬다는 자연의 법칙이 인간에 투영되면서 꽃이 지닌 잉태라는 원초적 의미가 부활과 동일한 의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승환, 「생불꽃연구」(『백록어문』 제13호,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

환생을 거치지 않는 것은 한국의 문화, 종교적 전통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한국인의 전통적인 영혼관을 형성시킨 무속과 불교에서 죽은 사람이 동물로 환생한 경우는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망자의 동물 환생은 살아생전 씻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결과로 받아드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문전본풀이」, 「삼공본풀이」와 같은 서사무가의 결말에서 악행을 저지른 인물들이 지네, 뱀, 벼룩 등으로 변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⁵³⁾

그리고 ‘꽃→구슬’로 환생하는 과정에서 구슬은 전통적으로 치부(致富)와 치병(治病), 구제(救濟)와 환생(還生), 승천(昇天) 등의 상징성을 띤 물건으로 인식되어 왔다.⁵⁴⁾ 또한 ‘꽃→구슬’로 환생을 불교적 연화화생신앙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⁵⁾ 불교에서는 생물은 태생(胎生), 난생(卵生), 습생(濕生), 화생(化生) 이상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출생한다고 본다. 이 중에서 스스로 홀연히 나타나는 화생(化生)만이 부모를 통한 탄생이라는 연(緣)을 끊는 유일한 정토(淨土)적 탄생법이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연화화생(蓮花化生)관념으로 이는 태초를 상징하는 물로부터 피어나는 연꽃(꽃) 속에서 보주(구슬), 용, 새, 할머니, 천인 등이 태어나는 도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콩쥐의 환생과정은 한국의 무속적 생명관과 불교적 사고관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콩쥐팍쥐」에서 주인공의 이름을 통해서도 인물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설화의 등장인물 ‘콩쥐’와 ‘팍쥐’의 이름은 곡물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곧 농경생활 중심의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장인물의 그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씨앗’처럼 땅에 묻혀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환생하는 농경 신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⁵⁶⁾

마지막으로, 「콩쥐팍쥐」에서 등장인물 중 사람이 아닌 동물이 원조자로 나타나는데, 이는 악인인 계모가 부여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 설화에서는 황소로, 독일 설화의 경우에는 하얀 새로 등장하는데 이 원조자들은 인간이 아닌 동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예컨대, 주인공의 죽은 어머니가 환생하여 주인공에게 부여된 과제를 해결하여 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은 동물을 신성하게 여겼던 토LEM미즘적 사상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 설화에 등장하는 「재투성이」의 원조자 하얀 새는 서양에서 평화를 상징하며⁵⁷⁾, 하얀

육연구회, 1997), 16~30쪽.

53) 김혜정, 앞의 논문, 2012, 160쪽.

54) 금은영, 「보주의 형식과 전개와 상징」(『불교미술사학』 제 2집, 2004), 126~127쪽.

강진옥, 「구전설화의 이물교혼 모티브 연구」(『이화어문논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90), 183~184쪽.

55) 편무명, 「연꽃화생의 보편성과 상징성」(『동아시아고대학』 제25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1), 391~392쪽.

56) 이혜정, 「<콩쥐팍쥐>의 농경 신화적 성격」(『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11), 240쪽.

57) 새, 날개, 비상은 존재의 우월한 상태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 추장의 머리에 두르는 깃털은 영적 권위를 상징하며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전령인 헤르메스가 붙이고 다니는 날개는 하늘과의 소통을 상징한다. 이렇게

새가 등장하는 것은 독일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흰색이라는 주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⁵⁸⁾ 이와는 달리, 「콩쥐팥쥐」의 원조자는 황소로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묘사된다. 이러한 사실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가 콩쥐를 위해 밭을 매거나 좋은 호미를 주는 사건은 농경문화가 발달한 문화권에서 소는 희생제사의 대상이며 동시에 농경신으로 추앙받던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콩쥐팥쥐」설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소를 통해서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가 지상과 천상으로 나누어지는 이원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죽은 어머니는 지상에 머물지 못하고 천상으로 올라가야 한다. 삶과 죽음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콩쥐를 도와준 황소는 지상에 머물 수 없으며 바로 하늘로 올라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세계는 환생이라는 고리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적 세계관의 개입이 확인된다.⁵⁹⁾ 어머니가 황소로 환생하여 지상으로 내려와 콩쥐를 도와 줄 수 있는 것도 환생을 통해서이다. 또한 황소의 역할을 통해 콩쥐 대신 밭을 매주는 역할은 우경으로 인해 농업기술과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농경문화의 역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콩쥐팥쥐」 설화는 죽은 어머니의 환생물인 황소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발생과 전승 배경으로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이원적 세계관을 함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불교적 환생 의식과 우경을 활용한 농경문화 등도 그 원천에 깔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주제와 세계관

1) 주제와 세계관

한국 설화 「콩쥐팥쥐」는 권선징악적 주제를 담고 있다. 한국만 아니라 독일, 중국, 일본 4개국 설화에서도 선인은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고 악인은 결국 선인에 의해 처벌

하늘과의 소통 때문에 새는 천사로 유추되었다. (릭 브노와 저, 윤정선 역, 『징표·상징·신화』, 탐구당, 1984, 66쪽.)
 58) 권순희·김승연, 「콩쥐팥쥐류 동화의 문화맥락 탐구학습과 다문화 이해교육」(『국어교육연구』, 제 48호, 2011), 39쪽.
 59) 박용식은 한국설화에는 인도환생, 동물환생, 식물환생, 광물환생 등이 보이며 이러한 환생은 고대인들이 지니고 있던 영혼불멸사상과 불교의 윤회업보전생관이 서로 습합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식, 「한국설화의 영혼불멸사상고」, 『건대학술지』, 제 28집, 1984, 46~47쪽.)

되는 결말을 맞는다. 이 공통적인 결말을 통하여 민중들의 보편적 소망과 윤리적 행복관이 권선징악적 주제를 낳는다.

이 설화구조에서 선인은 자신보다 지위가 높고 경제적 상황이 나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인과응보 법칙의 수혜자가 된다. 주인공들에게 주어진 사회·윤리적 의미는 신분 차별을 겪고 살아가는 민중이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소망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있다. 그리고 각 국가마다 악인에 대한 처벌의 수준은 다르지만, 선인과 악인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악인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는 점도 윤리적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한국 설화의 경우에도 선인과 악인의 갈등이 결혼 전과 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계모가 자신의 딸의 인육이나 뼈를 먹거나 보고 놀라 죽음을 맞는 잔인한 결말을 보인다. 하지만 독일 설화의 결말은 이에 비하여 처벌 수준이 미비하다.

「콩쥐팍쥐」는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고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주인공은 마침내 그 운명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이다. 결혼 이후에도 콩쥐에 대한 학대와 모함은 지속되고 결국 콩쥐를 죽이기까지 한 계모와 팍쥐는 중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독일 설화 「재투성이」에서는 계모와 딸들이 신데렐라를 학대하는 일은 있지만 생사를 좌우하는 정도는 아니며, 이에 따라 악인에 대한 처벌도 잔인하지 않다. 그러나 「콩쥐팍쥐」는 결혼 후일담 이야기에서 선인과 악인의 갈등이 극대화되어 대립하고 그 결과 선인의 승리로 끝남으로써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는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악인에 대한 강한 처벌은 한 가정에 후처로 들어간 계모의 행동에 대한 경계와 교훈을 제시하는 의도일 것이다. 새로운 가정 구성원으로서 계모는 전처의 자식을 사랑하고 양육하여야 하는데 「콩쥐팍쥐」의 계모는 전처의 자식을 사랑하기 보다는 학대하고 모함하여 죽이기까지 한다. 전처 자식을 학대하는 계모와 이복형제의 행위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지만 결국에는 그 계획이 탄로 나고 계모는 처벌을 받는다. 그 처벌은 매우 잔인하게 행해지는데 이는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경계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2) 미의식

「콩쥐팍쥐」에서 주인공 콩쥐는 순수미의 상징이다. 이에 반하여 악인 계모와 팍쥐는 순수미와 대립되는 추미의 상징이다. 독일 설화 「재투성이」에서도 미의식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선인 재투성이는 순수미를, 악인 계모와 이복자매는 추미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이야기의 내용상 「콩쥐팍쥐」가 보여주는 순수미와 계모와 팍쥐가 보여주는 추미는 상대

적으로 강조된다. 「콩쥐팍쥐」의 내용구조 속에서 계모와 팍쥐는 콩쥐에 대한 지속적 학대와 함께 콩쥐를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데 반하여, 콩쥐는 지속되는 계모와 팍쥐의 학대 속에서도 시련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양자의 노력은 독자들의 권선징악적 윤리관에 비례하여 더욱 강조된다.

예컨대, 콩쥐의 착한 성품과 행동 속에는 콩쥐가 추구하는 윤리와 미의식 내재해 있고, 악인 계모와 팍쥐의 욕망과 행동 속에는 그들의 미의식과 윤리관이 잠재해 있다. 여기서 후자의 반윤리적 미의식은 선인 콩쥐가 추구하는 순수미를 대비적으로 강조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테면, 「콩쥐팍쥐」가 주인공 콩쥐를 통해 보여주는 순수미는 악인의 추구하는 추미가 강렬해 질수록 더욱 독자들에게 강렬하게 내면화하게 한다. 악인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과 태도로 선인이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록, 선인이 추구하는 윤리관과 순수미는 더욱 강조되어 독자들에게 감정이입 효과를 유발시킨다.

이상으로, 「콩쥐팍쥐」와 독일, 중국, 일본의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비교·대조를 통하여 4개국의 보편적 서사구조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콩쥐팍쥐」와 유사한 유형의 설화들이 가진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한국 설화를 통한 문화교육을 실시할 때 학습자들의 국적에 따라 자국 설화의 비교와 대비의 관점에서 한국 문화 요소를 다양하고 흥미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해 수업을 할 때와 독일, 중국, 일본 등의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들이 혼합되어 있을 때 학습자들의 국적에 따라 교수자가 교육 내용을 달리 제시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제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화를 활용한 문화 교육 교수·학습모형과 수업 과정안을 구안하여 제시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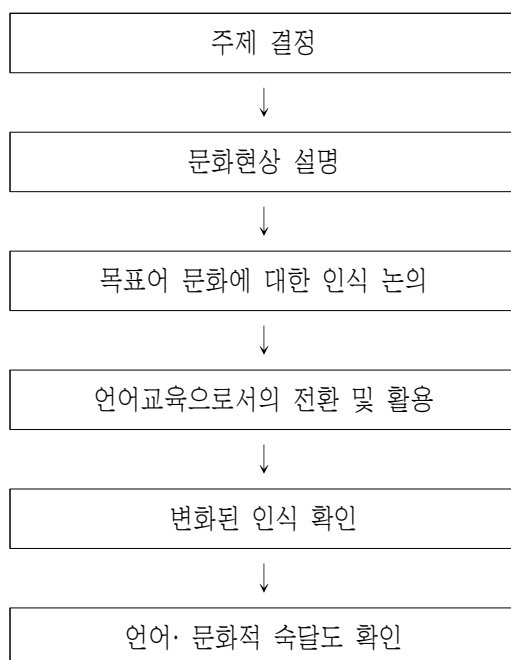
IV. 『콩쥐팥쥐』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안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콩쥐팥쥐』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모형과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안하여 제시하려고 한다. 먼저 한국 문화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자들의 한국문화 교육모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설화 『콩쥐팥쥐』를 활용한 문화교육 교수·학습모형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안을 설계하고 통합학습 방법과 현시적 교수법을 활용하여 구안하고자 한다.

1. 교수·학습모형

김정숙(1997)은 기존의 문화 교육 방법이 정보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문화교육이 과정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언어와 문화교육은 통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 모델을 제시하고 과정중심의 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과 아래와 같이 문화교육의 6단계를 제시하였다.⁶⁰⁾

<표2> 문화교육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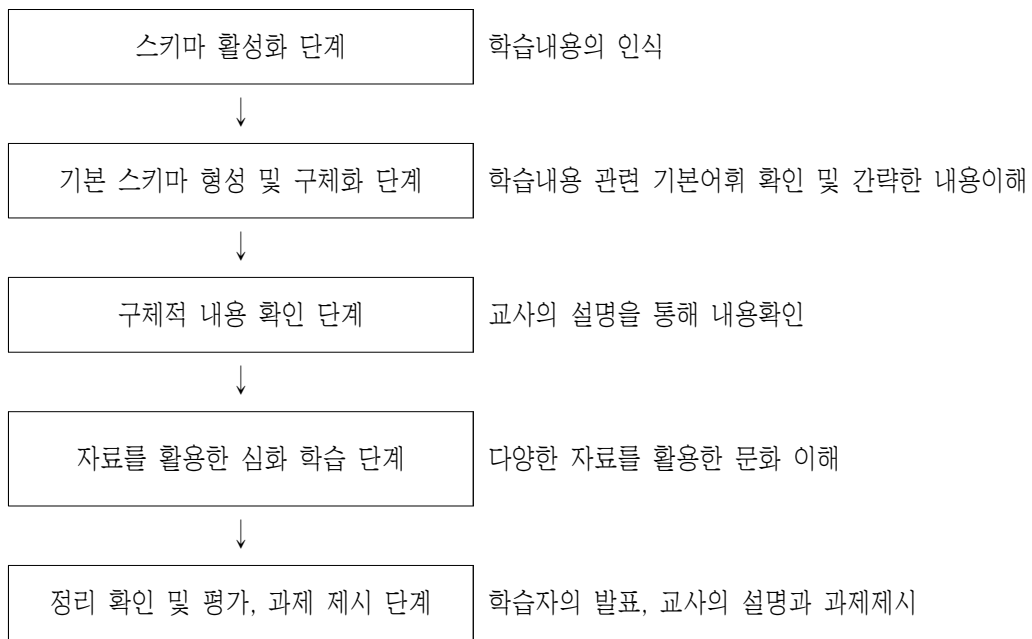
60) 김정숙,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교육한글』 제 10권, 한글학회, 1997), 374쪽.

이 연구는 언어와 문화의 통합 모형 제시와 과정 중심의 문화교육에 대한 구체적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초기교육 단계에서부터 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진, 음성자료, 비디오 자료, 실물 등의 다양하고 실제적인 자료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모형은 문학작품을 활용한 문화교육에는 적합하지 않다. 한국문화 교육과정 중심의 모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교수·학습 지도안 예시가 없다는 점과 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자들이 활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이 그 이유이다.

다음으로 배지윤은 문화 수업 단계모형을 아래와 같이 5단계로 제시하였다.⁶¹⁾ 이 모형은 한국어 교재를 활용한 교실 내 한국어 문화수업으로 교재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실제 자료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자국 문화와 비교하여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3> 교실 내 문화수업 운영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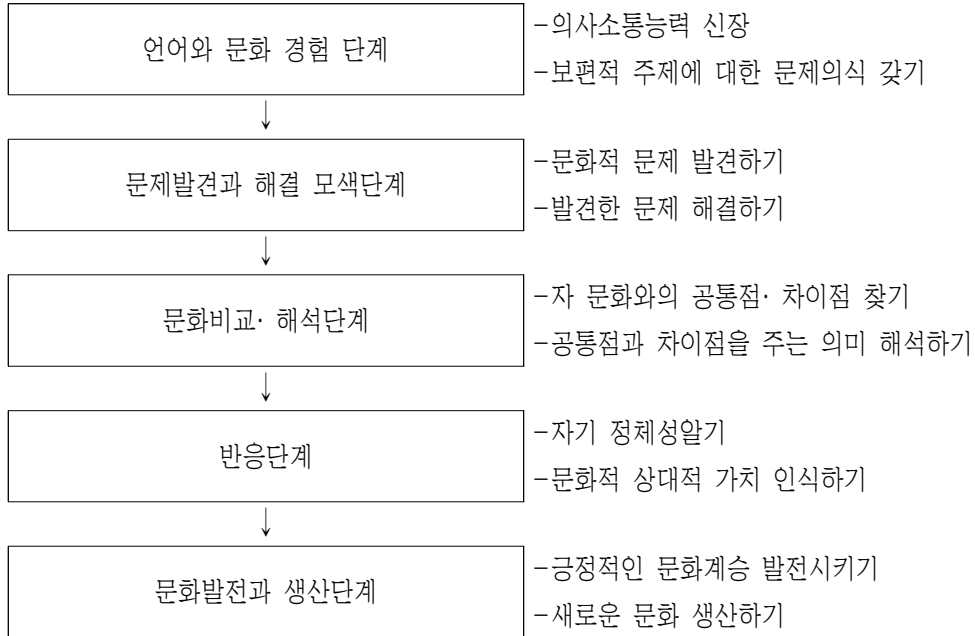


또한 임경순(2006)은 한국 언어문화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의사소통이며, 그것은 문화 차이를 전제로 함을 밝히면서 문화 간 의사소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아래와 같은 5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⁶²⁾

61) 배지윤, 「외국어로서의 한국에서 문화교육모형」(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52쪽.

62) 임경순, 「문화 중심 언어와 문화의 통합교수 학습방법연구」(『한중인문학연구』 제19집, 2006), 30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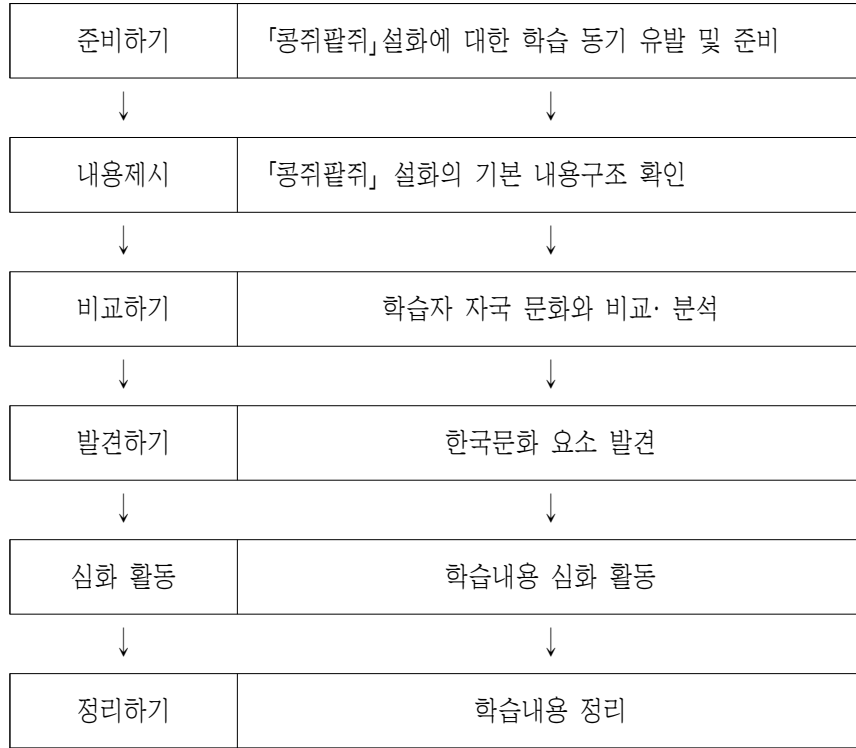
〈표4〉 문화중심의 교수·학습과정 모형



위 모형은 한국 언어문화를 교육하는데 우선 학습자 자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한국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학습자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상대적으로 인정하고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이 모형 또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문학을 활용한 문화모형이기보다는 한국어를 학습할 때 학습자가 언어의 차이나 한국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를 기본 문제로 설정하기 때문에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 모형에는 적합한 모형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의 모형들과 같이 이 모형 또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한국어 교육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해서는 「콩쥐팍쥐」를 활용한 앞의 모형들을 참고하여 새롭게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이 모형 먼저, 6단계를 거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학습자들이 자국의 설화와 한국 설화를 비교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이끈다. 다음으로는 「콩쥐팍쥐」와 자국의 설화를 비교·대조하여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게 한다. 끝으로,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은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심화단계를 거치게 한다. 따라서 양국의 설화를 비교·분석하는 활동은 부수적으로 학습자의 종합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표5〉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 교수·학습과정 모형



우선,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콩쥐팥쥐」에 대한 동기 유발을 시키고 학습할 목표와 과제를 설명한 뒤, 학습자의 활동에 대한 유의점을 교사가 설명하는 단계이다. 이때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위해 「콩쥐팥쥐」 책을 스캔하여 보여주거나,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여 설화 내용을 읽기 전에 설화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내용제시 단계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콩쥐팥쥐」를 제시한다. 그리고 설화의 내용을 기본 서사구조로 설명한 뒤 작품에 드러난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통하여 문화 내용을 유추해 보게 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도움을 주도록 한다.

비교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자국의 신데렐라 유형의 설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콩쥐팥쥐」와 비교하는 활동을 한다. 이때 학습자의 자국 설화 또한 「콩쥐팥쥐」의 서사구조처럼 분석하게 한 후 두 설화의 기본 서사구조를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콩쥐팥쥐」와 자국 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활동을 한다. 이 활동에서 학습자는 자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상이점을 발견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발견하기 단계에서는 자국의 문화와 비교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적 요소와 특징을 발견한다.

학습자는 한국 문화 요소와 특징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찾을 수도 있으나, 학습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사의 도움을 통하여 그 의미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심화활동 단계에서는 다른 자료를 통하여 학습내용을 심화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자국 문화와 비교 단계를 통해 형성된 자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목표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학습 문화에 대한 발전 및 새로운 문화 생산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⁶³⁾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작품의 기본 내용을 바꾸어 보기, 작품의 결말 바꾸어 보기, 역할 놀이하기, 비슷한 주제를 가진 자국의 작품 소개하기, 연극이나 드라마 대본으로 각색하기 등 다양한 학습으로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며 내용을 심화하는 활동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기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전체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2. 교수 · 학습과정안

이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콩쥐팍쥐」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앞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되 이 수업은 모둠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이에 적합한 활동중심의 통합학습 방법과 학습자 스스로의 주도적인 학습을 유지하기 위한 현시적 교수법을 적용하여 과정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이 과정안에서 현시적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학습자 스스로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하기 위함이다. 현시적이라는 말은 교사가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으로, 직접 교수법처럼 기능을 위계적으로 나누고 세부기능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학습 전체를 중요시하는 전략을 강조하며 배운 것을 실제 상황에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수법이다.

이 교수법을 학습자들이 설화의 기본 서사구조를 파악하는 활동에 사용하여 교사가 「콩쥐팍쥐」의 일부분을 자료로 제시하여 서사구조 분석 방법을 시범으로 보이는데 활용한다. 이 시범을 통하여 학습자가 설화의 기본 서사구조를 분석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이끌 것이다. 또한 이 방법을 자국 설화의 기본 서사구조를 파악하는데 사용하고, 추출한 한국 문화적 요소와 특징을 심화단계에서

63) 이성희, 앞의 논문, 1999, 267쪽.

다양한 활동에 적용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교수법은 교사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다. 때문에 교사의 역할 또한 학습자가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교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모둠활동을 통한 학습에도 적합한 교수법이 된다. 모둠활동을 통한 학습을 선택한 이유는 개인적 학습활동 보다 모둠활동을 통하여 모둠원들에게 설화의 기본 서사구조를 서로 같이 의논하여 작성하게 함으로써 개인적 학습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부담감을 줄이는데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이므로 개인이 한국 설화를 읽고 분석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둠활동을 통하여 학습자의 학습내용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함께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습자 간 동료학습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개인적 학습보다는 학습 효과와 학습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부수적으로 모둠원 간의 협동심도 발휘될 수 있으며, 학습 시간 내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용이하다. 이러한 교육 방법을 적용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 학습자의 수준을 한국어 능력이 고급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V-1에서 제시한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 교수·학습 모형을 통합학습과정 단계에 적용하여 각 활동 단계별 학습활동 내용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6〉 통합학습 과정절차

설화를 활용한 문화 교육 교수·학습 모형	주요 활동	통합학습 과정(단계)
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분위기 조성하기 • 학습목표/과제 설정하기 • 활동선정하기 • 활동의 절차와 유의점 안내하기 	준비단계
내용제시 비교하기 발견하기 심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단별로 모이기 • 소집단별로 의논하기 • 순서대로 활동하기 • 활동에 대한 검토하기 • 활동한 것 발표준비하기 	활동하기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한 것 발표하기 • 각 발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활동 전체 정리하기 	정리하기

이제 「콩쥐팍쥐」를 텍스트로 한 문화교육을 위해 IV장에서 분석한 한국 문화적 요소와 특징을 교수·학습 과정안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한국 문화교육을 실시할 때 교수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과정안은 1~2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시에서는 한국 설화 「콩쥐팍쥐」와 독일 설화 「재투성이」의 서사구조 분석을 하고, 분석한 서사구조를 도표화하여 나타낸다. 학습자는 이 두 설화의 기본 구조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콩쥐팍쥐」의 특수성을 찾아 한국 문화적 요소와 특징들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7〉 제 1차시 교수·학습과정안

학습자수준	중급 이상	영역	읽기/쓰기/문학	「콩쥐팍쥐」	차시	1/ 2
수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설화 「콩쥐팍쥐」를 읽고, 이야기의 서사구조를 파악 할 수 있다. •한국 설화 「콩쥐팍쥐」와 유사한 자국의 설화를 찾고, 비교할 수 있다. 					
수업방법	활동중심의 통합학습과 현시적 교수법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학습 형태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준비하기	동기 유발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하기 • 학습 분위기 조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에게 자국에서 유명한 설화 질문하기 • 한국 설화 「콩쥐팍쥐」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쥐팍쥐」그림책이나 동영상을 통하여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 학습 목표 제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쥐팍쥐」를 읽고, 서사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 「콩쥐팍쥐」와 유사한 자국의 설화를 찾고, 비교할 수 있다. 	5분	「콩쥐팍쥐」 책과 동영상 자료 활용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학습 형태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소개 및 유의점 제시하기 <p><활동1> 설화 기본 서사구조 정리</p> <p><활동2> 「콩쥐팍쥐」와 자국 설화 비교하기</p>		
활동 하기	설화 내용 비교 하기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서사구조 찾는 방법 시범 보이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콩쥐팍쥐」의 일부분을 통하여 기본 서사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시범으로 보인다. <p>① 최소사건으로 구성하기 : 「콩쥐팍쥐」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최소사건의 단락으로 구분하고,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p> <p>② 시퀀스 구성하기 : 몇 개의 최소사건을 묶어 보다 큰 의미집단으로 묶어 명명한다.</p> - 교사는 학습자에게 시퀀스가 모여 전체 작품을 구성한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 이를 바탕으로 교사는 학습자들이 「콩쥐팍쥐」의 기본서사구조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div>	35분	<p>학습지</p> <p>① 「콩쥐팍쥐」 내용 제시하기</p> <p>② 기본서사구조 도표 제시하기</p> <p>③ 독일 설화 「재투성이」자료 제공</p> <p>교사의 도움, 인터넷 활용</p>
		모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단별 토의 · 활동하기 <p><활동1> 「콩쥐팍쥐」를 읽고, 기본 서사구조 파악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둠은 교사가 제시한 「콩쥐팍쥐」를 개별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학습 형태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p>적으로 읽은 후, 서로 의논하여 서사구조를 제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사구조 파악 시, 각 모듈 구성원들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할 수 있음을 인지시킨다. - 교사가 제시한 학습지를 활용하여 「콩쥐팍쥐」의 기본 서사구조를 정리한다. <p><활동2> 독일 설화 「재투성이」를 읽고, 기본 서사구조 파악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로 된 설화뿐 만 아니라 모국어로 된 설화를 찾아보는 것을 허용한다. - 자료 준비 못할 경우, 교사가 준비한 설화를 제공한다. - 「재투성이」의 기본 서사구조를 파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하기 활동 - 「콩쥐팍쥐」와 「재투성이」의 기본 서사구조 비교한다. - 양 국 설화의 비교를 통하여 「콩쥐팍쥐」의 특징을 찾는다. - 이 내용을 표로 간략하게 정리한다. 		
	발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쥐팍쥐」의 한국 문화적 요소 발견하기 활동 - 모듈원의 의논을 통해, 한국 문화적 요소와 특징 그 의미를 분석한 후 정리한다. - 교사의 도움 요청하거나 참고 자료(책, 사진, 인터넷 등)를 사용한다.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학습 형태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정리 하기	내용 정리	모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쥐팍쥐」의 한국 문화적 요소 정리하기 • 발표 자료 만들기 	10분	ppt 사용 학습지 활용

교수·학습과정안의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질문을 통하여 자국의 유명한 설화를 이야기 하도록 유도한다. 이 질문을 통하여 설화가 문학 텍스트로 활용됨을 인지 시킨다.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설화 「콩쥐팍쥐」를 소개한다. 학습 대상자가 외국인임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콩쥐팍쥐」의 내용을 미리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그림책이나 동영상 자료를 통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이 후에 활동하기 단계에서는 우선, 교사가 전체학습을 통하여 「콩쥐팍쥐」의 일부분 제시하고 기본 서사구조를 찾는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는 「콩쥐팍쥐」의 전체 내용을 최소사건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하나의 문장을 제시한다. 그 후에 다시 시퀀스로 묶어 그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은 모둠원간의 토의를 통하여 통일된 하나의 기본 서사구조를 작성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자국 설화의 기본 서사구조로 분석할 때 더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양국 설화의 기본 서사구조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 후에 교사가 제시한 학습지에 도표로 정리한다. 이 도표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콩쥐팍쥐」와 「재투성이」의 기본 서사구조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설화의 개별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양국 설화의 개별적인 요소와 특징의 의미를 학습자들이 의논하여 함께 찾도록 하고 교사는 도움을 주지만 직접적인 내용 언급이나 내용 제시는 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학습자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학습의 책임이 교사가 아닌 학습자에게 있음을 전제하는 교수·학습모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견한 한국 설화의 문화적 요소와 특징을 발표 자료로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지금까지 1차시 학습에서는 동기 유발하기, 설화 내용 비교하기, 한국 문화적 요소 발견하기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에 이어 2차시 학습에서는 심화 활동하기와 활동 정리하기를 통하여 학습자가 발견한 한국 문화적 요소와 특징을 장기간 기억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정교화 활동중심으로 구

성하였다. 우선, 1차시에 발견한 한국 문화적 요소를 발표하고 난 후 교사가 전체학습을 통하여 발표 내용을 정리한다. 그 후에 모듈별로 다양한 심화활동을 제시하여 학습한다. 심화활동으로는 3~4가지 활동을 제시하여 모듈에서 선택하여 활동하게 인도하지만, 학습시간을 고려하여 교사가 직접 선택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이는 동일한 활동을 선택하더라도 학습자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교사가 동일한 심화활동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표8〉 제 2차시 교수·학습과정안

학습자수준	중급 이상	영역	읽기/쓰기/문학	「콩쥐팍쥐」	차시	2/ 2
수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설화 「콩쥐팍쥐」나타나는 한국 문화적 요소를 말 할 수 있다. •한국 설화 「콩쥐팍쥐」의 한국 문화적 요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수업방법	활동중심의 통합학습과 현시적 교수법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학습 형태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준비 하기	준비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하기 • 모듈별로 발표 준비확인 하기 - 각 모듈별로 이전 수업 활동 발표 자료 확인 한다. 	5분	
활동 하기	심화 활동 하기	모듈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별로 「콩쥐팍쥐」에 발견한 한국 문화적 요소 발표하기 	10분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듈 발표 후 교사의 내용 설명 및 보충하기 - 각 모듈별 발표 내용을 확인한 후, 교사는 「콩쥐팍쥐」 한국 문화적 특성을 설명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쥐팍쥐」설화의 한국 문화적 특성 1. 사건의 시·공간과 서사구조 1) 사건의 시·공간 </div>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학습 형태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문화의 중심인 농촌마을 - 잔치 문화의 의미 <p>2) 서사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담과 결혼 후일담으로 구성된 이중 서사구조: 적극적인 한국 여성의 특성 - 과제의 종류와 성격을 통해 능력을 강조하는 노동 지향적 특성 <p>2. 인물의 성격과 갈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쥐는 선인의 대표적 유형, 계모와 팥쥐는 악인의 전형적 유형 - 콩쥐와 계모의 욕망추구 과정 (그림1) - 「콩쥐팥쥐」의 이항대립구조(그림2) - 「콩쥐팥쥐」의 인물구도(그림3) - 콩쥐의 환생과정 :한국 무속적 생명관과 불교적 사고관 반영 <p>3. 주제와 세계관</p> <p>1) 주제와 세계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선징악적 주제의 극대화 <p>2) 미의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인 콩쥐의 순수미와 악인 계모와 팥쥐의 추미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나, 학습자들의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보충·설명한다. - 학습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한다. 		
		모둠 심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둠별로 심화활동을 선택하여 활동하기 <p><심화활동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설화 「콩쥐팥쥐」에서 찾은 한국 문화 요소 	20분	교사는 각 모둠별 활동 과정을 관찰하면서 조언이나 도움을 제공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학습 형태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p>를 반영하여 독일 설화 「재투성이」 이야기를 재구성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쥐의 결혼 후일담 내용을 「재투성이」 이야기에 첨가하는 활동하기 <p><심화활동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쥐팥쥐」에서 나타나는 한국 문화적 요소와 특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p><심화활동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쥐팥쥐」 내용으로 역할극 만들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듈별 활동 내용을 발표하기 		
정리하기	활동 정리하기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발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활동 및 발표 내용에 대한 평가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 활동 전체 정리하기 - 교사는 수업의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마무리 한다. 	5분	

이 과정안에서 심화활동은 우선, 「콩쥐팥쥐」에서 찾은 한국 문화 요소를 반영한 「재투성이」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수업이다. 「재투성이」에 부재하는 「콩쥐팥쥐」만의 서사 구조적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독일 설화 「재투성이」 이야기에 그것을 맞추어 이야기를 첨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활동은 학습자가 「콩쥐팥쥐」의 서사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작업이다. 「재투성이」 내용에 콩쥐의 결혼 후일담 내용을 응용하여 작품의 내용을 첨가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콩쥐팥쥐」의 서사 구조적 특징을 내면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다.

다음 활동은 「콩쥐팥쥐」에 나타나는 한국 문화적 요소와 특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수업이다. 이

활동은 학습자들에게 학습내용의 장기기억을 도와주는 전략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한 장의 장면으로 압축하여 표현해야 함으로 학습자의 표현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고급과정에 있는 학습자들에게도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부담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활동이다.

마지막 활동은 「콩쥐팍쥐」를 역할극으로 하는 수업이다. 이러한 역할극은 문학작품을 학습하고 나서 학습자들에게 문학작품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내면화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동이다. 문학작품을 희곡으로 전환하여 표현하는 일은 작품의 즐거이뿐 만 아니라 인물, 사건, 배경 등을 학습자가 재구성하여 연극에 맞는 상황으로 제시해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개성을 표현하고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이다. 이러한 역할극 활동을 할 때에는 「콩쥐팍쥐」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한국 문화적 요소나 특징이 드러나는 일부분만을 역할극으로 만들어 활동할 수도 있다.

이상의 다양한 심화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발표가 끝나면, 교사와 학습자들은 발표 내용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은 후 교사가 최종 평가와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한다.

V. 결론

이 연구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콩쥐팍쥐」를 활용한 문화교육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의 한국어 교육을 반성하고 문학작품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화교육을 위해 한국의 '신데렐라'형 대표설화인 「콩쥐팍쥐」를 텍스트로 한국 문화적 특성과 요소를 추출하고, 그것의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문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한국어 문화교육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콩쥐팍쥐」를 활용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화교육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문화교육 제재로서의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전제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현 상황과 위상을 살펴보고 현재 문화교육의 흐름에 따라 문학작품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AT510A '신데렐라' 유형에 해당하는 독일, 한국, 중국, 일본 설화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각 국가의 기본 설화를 선정한 후, 기본 서사구조를 분석한다. 이에 각국 설화 구조를 토대로 한국의 설화 「콩쥐팍쥐」와 독일, 중국, 일본의 설화에 보편적으로 내재된 서사구조를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IV장에서는 「콩쥐팍쥐」의 한국 문화적 요소와 특징을 찾아내기 위하여 설화의 시공간과 서사구조, 인물의 성격과 갈등, 주제와 세계관 등의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V장에서는 IV장에서 분석한 한국 문화적 요소와 특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문화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연구된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의 학습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콩쥐팍쥐」설화를 바람직하게 교수하기 위한 교수·학습 모형을 작성하였다. 이 모형을 모델로 하여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교수하기 위한 학습 대상자는 한국어 능력이 고급 수준인 외국인 학습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안을 구현하기 위해서 활동중심의 통합학습 방법과 현시적 교수법을 사용하여 「콩쥐팍쥐」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 방법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한국 문화교육 교수·학습모형과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세계적

보편성을 지닌 ‘신데렐라’형 설화인 「콩쥐팥쥐」를 텍스트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고,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의 효용성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그림형제, 「Aschenputtel」, 『독일민담설화집』, 을유문화사, 김창환 역, 1981.

임동권, 「콩쥐와 팥쥐」, 『한국의 민담』, 서문당, 1972.

「콩쥐와 팥쥐」,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 9권~11권, 평민사, 1992.

「콩쥐팥쥐」, 『한국문학구비문학대계』 1~9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현용준, 「콩의애기 팥의애기」, 『제주민담』, 제주문화, 1996.

2. 단행본

금은영, 「보주의 형식과 전개와 상징」, 『불교미술사학』 2, 2004.

김성희,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도서출판 신정, 2002.

김종섭,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 『한국어 교육의 이해』, 하우, 2014.

김종철, 「한국 고전의 이해」, 『한국어 교육 이론과 실제 I』, 서울대 한국어문학연구소, 국어연구소, 2014.

김주숙, 『여성 노동의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박연숙, 「한국과 일본의 계모설화 비교연구」, 민속원, 2010.

신주철,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문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전성기 「콩쟁이와 팥쟁이」,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74.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_____, 「한국어 문화교육론」,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II』, 서울대학교출판부, 2014.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07.

_____, 『문화교육이란 무엇인가 -한국어 문화교육의 버리-』, 태학사, 2013.

_____, 「한국어 문화교수학습론」,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2002.

-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76.
- 이재승, 『좋은 국어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업방법 19가지-』, 교학사, 2005.
- 이지은, 『소설의 분석과 이해』,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 전호태, 『벽화여, 고구려를 말하다』, 사계절, 2004.
- 조 단, 「한·중 '신데렐라'형 민담의 문화형태학적 해석」, 『한중설화 비교연구』, 보고서, 2006.
- 조항록,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주요 쟁점과 과제」, 『21세기 한국어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2002.
- 조주연, 「〈콩쥐팍쥐〉와 〈Aschenputtel〉」, 『한독민담비교연구』, 집문당, 1999.
- 주경철, 『신데렐라 천년의 여행』, 산처럼, 2005.
- 편무영, 「종교와 그림을 위한 서론 -연화신인출생(蓮花神人出生) 신화(神話)의 글로컬리제이션-」, 『종교와 그림』, 민속원, 2008.
- 최남선, 『육당 최남선 전집 9』, 현암사, 1974.
- 최운식 외, 『설화·고소설 교육론』, 민속원, 2002.
- 최운식 · 김기창, 『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8.
- Eric. k. Taylor 저, 이희숙 외 역, 『전래동화와 언어교육』, 한국문화사, 2007.

3. 논문

- 권순희, 「언어 문학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의 교재편성 방안」, 『국어교육연구』 제 3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6.
- 권오경,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구축방안」, 『언어와 문화』 제 5-2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 권오현,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국어교육연구』 제 12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3.
- 강진옥, 「구전설화의 이물교환 모티브 연구」, 『이화어문논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90.
- 금은영, 「보주의 형식과 전개와 상징」, 『불교미술사학』 제 2집, 2004.
- 김정숙,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교육한글』 제 10권, 한글학회, 1997.
- 김정은, 「한국어 교육에서의 언어 문화교육」, 『이중언어학』 제 26호, 이중언어학회, 2004.
- 김중섭,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이중언어학』 제 27호, 이중언어학

- 회, 2005.
- 김수진,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교육 연구」, 『한국어교육』 제 20-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9.
- 김종철, 「한국 고전문학과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연구』 제 5집,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2002.
- _____,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제재 활용의 전통」, 『국어교육연구』 제 14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2004 .
- 김인에, 「한국 전래동화의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김현정, 「속담을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환희, 「비교문학적 시각에서 본 ‘콩쥐팥쥐’ 기원과 특성」, 『비평과 전망』, 통권 8호, 2004.
- 김해옥, 「문학작품의 어휘를 통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방법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 2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 김혜정, 「한·중 신데렐라 유형설화 비교연구 -한국의 <콩쥐팥쥐>와 중국의 <灰姑娘>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김혜진,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능력 향상을 위한 설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남정희, 「신 한짚의 상징적 의미」, 『반교어문연구』 제 27권, 반교어문학회, 2009.
- 민현식,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외국어교육학회』 발표 자료집, 2003.
- 박갑수,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과 문화적 배경」, 『서청어문』 제 26-1호, 서울대학교, 1998.
- 박영순,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제 23호, 이중언어학회, 2003.
- 박연숙, 「한국과 일본의 계모설화 비교 연구」, 『일본문화연구』 제 23집, 2007.
- 박용식, 「한국설화의 영혼불멸 사상고」, 『건대학술지』 제 28집, 1984.
- 배지윤, 「외국어로서의 한국에서 문화교육모형」,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석사학위논문, 2005.
- 성기철,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교육』 제 12-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1.
- 신상운, 「계모설화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신연우,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의 결혼과 상징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 25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 안미영, 「한국어교육에서 설화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 -<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본 한국의 문화-

-], 『정신문화연구원』 제 31-4호, 2008.
- 안성수, 「육망과 갈등의 통합적 연구방법 - 소설의 인물 중심으로-」, 『백록어문』 제 27집,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2014.
- 양민정,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국제지역연구』 제 7-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3.
- _____, 「동아시아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화 활용의 문화교육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 11-4호, 2007.
- _____,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 9-4호, 2005.
- _____, 「외국인을 위한 고전시가 활용의 한국어/문학/문화의 통합적 교육 -‘동동’을 중심으로-」, 『외국어문학연구』 제 29집, 2008.
- _____,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방안 연구 -한국고전문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 9-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6.
- _____, 「한국어 문화교육의 세계화와 탈춤의 활용 방안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제 24집, 2008.
- 오윤선, 「세계의 신데렐라유형 이야기군 속에서의 <콩쥐팥쥐이야기> 고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 오지혜, 「언어관련 속담을 통한 한국어 교육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윤여탁,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법」, 『국어교육연구』 제 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 _____,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법」, 『국어교육연구』 제 14-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 _____,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 _____,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위상과 역할」, 『국어교육연구』 제 7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0.
- 윤 영, 「외국인을 위한 한국소설 교육방안」,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기대, 「<콩쥐팥쥐>의 인간상과 불교적 세계관」, 『동아시아고대학』 제 28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2.
- 이선이, 「문학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방법」, 『한국어교육』 제 14-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 이성희,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방안」, 『한국어교육』 제 10-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9.
- 이수영, 「시를 통한 문화교육 방안」,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인택, 「중국 재생신화의 비교분석」, 『중국어문학논집』 제 15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0.

- 이지연, 「설화를 활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지도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진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를 통합시키기 위한 교육적 방안」, 『국어교육연구』 제 12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3.
- 임경순, 「문화 중심 언어와 문화의 통합교수 학습방법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 19집, 2006.
- 장경숙,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방안」,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주은정,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초급학습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조화연, 「전래동화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가능성 탐구」, 『해전대학 논문집』, 제 24호, 2006.
- 조항록,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교육』 제 11-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0.
- _____, 「한국어 고급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제 9-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8.
- 최은영, 「수필을 활용한 한국 정신문화교육 방안 연구 -재미동포 청소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최주열, 「한국 문화교육 접근방법 연구」, 『언어와 문화』 제 4-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9.
- 편무명, 「연꽃화생의 보편성과 상징성」, 『동아시아고대학』 제 25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1.
- 황인교,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교육』 제 31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6.
- 현승환, 「생불꽃연구」, 『백록어문』 제13호,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97.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s of Teaching Korean Culture
with the Use of 'Cinderella' type

Kim, Myoung—hee

A major in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Ahn, Seong—soo

This study contains new ways to teach Korean culture foreigners who learn Korean as their second language and lesson plans that utilize the Korean folk tale, Kong-Jwi Pat-Jwi. Res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learners with opportunities that understand Korean culture and educate Korean culture to them with the use of Korean folktale, Kong-Jwi Pat-Jwi, Through this investigation, I found out the productive results as below:

First, in terms of its narrative structure, the Korean folktale, Kong-Jwi Pat-Jwi, shows not only Korean's strong will to overcome hardships by using the repetitive cycle of adversity and happiness, but also the Korean ideology of happiness by using the happy ending. Moreover, by constructing Double Narrative Structure consisting of two stories of before and after the marriage, we could identify that Korean women are enthusiastic progressiveness

Second, from the aspect of its theme, we could recognize the fact that the novel has maximized the didactic idea of the good triumphing over the evil using the ending that the good gets over difficulty and the evil ends up in death after the good comes into conflict with

the evil.

Third, the protagonist is assigned to farm work as a labor, and it eventually shows that the story has reflected a labor-oriented thinking that the Korean have had, where people consider farming as a desirable work. It can be a part of farming culture.

Fourth, the protagonist of this story is reincarnated from a flower to a marble after her death. Through this procedure of reincarnation, we would notice that the folktale mirrors the Korea's respect of life in Shamanism and the idea of Buddhism.

Lastly, I hope this study that has utilized the Korean folktale, Kong-Jwi Pat-Jwi will be able to give a practical help to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teaching-learning model that provides specific lessonplans.